

I·SEOUL·U

2021 주요 업무 계획

2021. 2.



목 차

I. 일반현황

1

II. 시정비전

4

III. 2021 시정운영방향

5

IV. 코로나19 대응현황

6

V. 주요업무 추진계획

11

I. 일반 현황

1. 인구 및 면적 ('20.12.31. 기준)

인 구 – 4,418천 세대 9,911천명 (내국인 9,729천명, 등록외국인 282천명)

면 적 – 605.24km² (전국의 0.6%)

행정구역 – 25개 자치구, 425개동(12,713통 / 94,152반)

강	· 인구 : 14개구 4,757천명(48.0%)
북	· 면적 : 297.84km ² (49.2%)



강	· 인구 : 11개구 5,154천명(52.0%)
남	· 면적 : 307.40km ² (50.8%)

2. 조직 및 인력 ('20. 12. 31. 기준)

● **서울시** – 3부시장, 6실 5본부 10국 14관·단, 156과·담당관, 3사업본부, 32직속기관(24개 소방서 포함), 46사업소, 3합의제

▷ 정 원 : 18,709명(본청 4,751, 시의회 345, 직속기관 8,190, 사업소 5,185, 합의제 238)

● **자치구** – 25개구 146국 867과, 25보건소

▷ 정 원 : 35,905명(구청 26,479명, 주민센터 9,426명)

③ 2021 재정운용('21.1.1. 기준)

예산규모

(단위 : 억원)

< 총 계 예 산 >

구 분	2021년	2020년(본예산)	증 감(%)
합 계	40조 1,562	39조 5,359	6,203 (1.6%)
일반회계	27조 7,258	26조 8,934	8,324 (3.1%)
특별회계	12조 4,305	12조 6,425	△2,120(△1.7%)

회계간 전출입 : 4조 7,077억원



(단위 : 억원)

< 순 계 예 산 >

구 분	2021년	2020년(본예산)	증 감(%)
합 계	35조 4,485	35조 2,808	1,677 (0.5%)
일반회계	23조 6,608	23조 2,186	4,422 (1.9%)
특별회계	11조 7,877	12조 622	△2,745(△2.3%)

법정의무경비 : 10조 2,708억원

- 자치구 5조 4,541억원, 시 교육청 3조 4,091억원, 채무상환 9,148억원, 기금전출금 등 4,928억원 -



(단위 : 억원)

< 실집행 규모 >

구 分	2021년	2020년(본예산)	증 감(%)
합 계	25조 1,777	25조 5,452	△3,675(△1.4%)
일반회계	14조 4,046	14조 3,143	903 (0.6%)
특별회계	10조 7,731	11조 2,309	△4,578(△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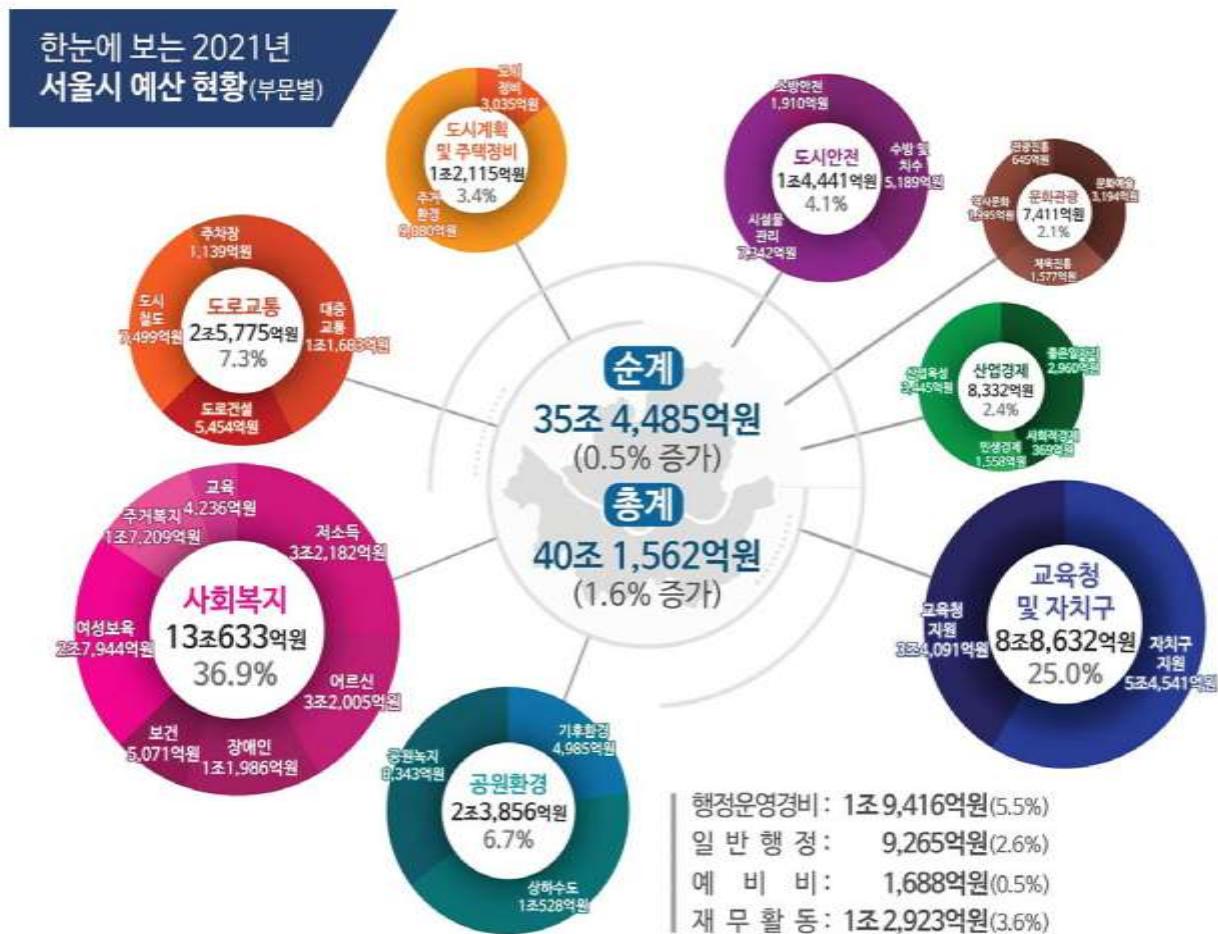
기금규모

- 17개 기금 1조 8,428억원 ('20년 본예산 대비 6,057억원, 24.7% 감소)

자 치 구

- 18조 6,696억원 ('20년 본예산 대비 6.7% 증가, 1구 평균 7,468억원)

부문별 비중(순계규모)



지방채 현황 (20년 12월 현재)

- 서울시 8조 1,422억 원

(단위 : 억원)

계	도시철도 건설 등	주택사업	도시공원 보상	SOC 사업 등
81,422	43,259 (53.1%)	16,234 (19.9%)	10,100 (12.4%)	11,829 (14.5%)

II. 시정비전

비전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

목표



기조

현장

혁신

형평

III. 2021 시정운영방향

- ◆ 코로나19의 조속한 극복과 민생경제 지원을 통해 시민의 일상을 회복하여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 구현

■ 코로나 극복과 촘촘한 돌봄으로 ‘민생을 책임지는 복지 서울’ 실현

- 감염병 대응 인프라 구축 및 지원 강화, 촘촘한 공공돌봄 안전망 구축
- 틈새 없는 아이돌봄 생태계 조성 및 차별 없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 민생경제 위기를 넘어 도약을 통한 ‘함께 성장하는 미래 서울’ 구현

- 민생경제 신속회복 지원, 비대면 산업생태계 촉진, 창업생태계 고도화
- 취·창업 지원 및 사회적 협력성장 강화, 미래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
- 관광위기 극복 및 성장기반 조성, 시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확산

■ 생활 속 불편과 위험·사고 없는 ‘쾌적하고 편리한 안전 서울’ 조성

- 현장 중심 재난안전 대응 체계 확립 및 복합재난 대비 인프라 구축
- 대중교통 간선망 확대, 사람중심 교통문화 확산, 미세먼지·온실가스 감축
- 쾌적하고 청결한 자원순환, 한강 자연성 회복 및 수돗물 신뢰도 제고

■ 주거안정과 지역별 특화·균형으로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 서울’ 조성

- 주택시장 공공성 강화 및 공급 확대,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관리체계 구축
- 서울 산업재생추진, 권역별 맞춤형 발전전략 추진 및 간선도로망 확충

■ 평등에 기반한 소통과 협치 강화로 ‘시민이 주인되는 민주 서울’ 실현

-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 본격 추진 및 성평등 문화 확산
- 청년·인권정책 및 대시민 소통 강화, 참여와 공론을 통한 시민민주주의
- 공정하고 신뢰받는 청렴시정 구현, 코로나19 시대 적극적인 재무행정 추진

IV. 코로나19 대응현황

전 세계에서 대유행(Pandemic) 중인 코로나19에 대한 서울 내 확산 방지 및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서울시 대응현황 보고

□ 코로나19 현황 및 市 대응 조치

발생 현황 '20. 1월 최초 발생 이후 서울시 26,927명 확진((2. 18. 0시 기준)



- '20년 말~'21년 초 대유행 이후 진정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위험요소 상존
 - 산발적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대유행 종료 판단은 시기상조

대응 조치 추적, 검사, 치료 등 3T 기반 체계적 대응 및 민생지원

- (추적) 역학조사 인력 확보 및 역량강화 등을 통한 추적 관리
 - (역학조사단) 신용카드 사용내역, GPS 등 자료 분석 위해 운영('20. 3.~)
 - (즉각대응반) 집단감염 발생 시 市 즉각대응반 파견하여 역학조사 등 지원
- (검사) 적극적 검사 시행으로 지역사회 숨어있는 확진자 선제발견
 - (선별진료소) 일반(216만 건 검사) 및 임시(89만명 검사/2,854명 확진, '20.12.~'21.2.) 검사소 운영으로 선제발견
 - (선제검사) 고위험집단 및 일반인 선제검사 시행('20. 6.~) 39만여 명 검사 시행
- (치료) 공공병원 및 민간병원과의 협력 통한 차질없는 치료체계 구축
 - (병상) 2,000개 이상 감염병 전문병상 및 200여 개 중증환자 전담병상 확보
 - (생활치료센터) 市 및 자치구 생활치료센터(市 3,529병상, 區 2,284병상) 설치
- (민생경제) 코로나19 경제적 충격 완화를 위해 직·간접적 경제지원 시행
 - (직접지원) 市 긴급생활지원금('20.3월), 소상공인 생존자금('20.4월) 등 지원
 - (간접지원) 고용유지지원금(고용지원), 상품권 발행(매출지원) 다양한 지원 강구

중점 추진사항

추진방향

- (거리두기) 확산 차단과 시민 피로도 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탄력적 운용
- (백신접종) 철저한 사전 준비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질서있는 접종 시행
- (시민안정) 지속적 민생경제 지원 및 투명한 정보공개로 시민생활 안정

① 선제조치 등과 함께 시민 수용성을 고려한 탄력적 거리두기 추진

추진경과 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른 신속한 거리두기 시행 및 강화

- (11. 24)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및 천만시민 멈춤기간 선포
 -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집단감염 취약시설(체육시설 등) 서울형 추가 조치
- (12. 05) “저녁 9시 이후 서울을 멈춥니다” 서울형 2단계 추가 강화
 - 공공시설 운영 중단, 서울 내 중점·일반관리시설 21시 이후 집합금지
- (12. 08)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서울형 3대 조치 지속
 - 10인 이상 집회금지, 공공기관 운영중단, 대중교통 감축 등 3대 방역조치 지속
- (12. 23) 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선제적 발동
 - 경기도·인천시 공동 시행, 추후 중대본 전국 확대 시행('21.1.4.~)
- (01. 04)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현 행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 2단계 조정 · 시행

- (기간) '21.2.15.(월) ~ 2.28(일) [2주간 시행]
- (주요내용) 서민경제 애로 및 시민 수용성을 고려 일부 방역 조치 완화
 - (제한해제) 영화관, PC방, 학원·독서실,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정상 운영
 - (제한완화)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운영시간 제한을 21시→22시로 완화
 - (사적모임) 방역 완화 효과 최소화를 위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지

②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안전하고 체계적인 백신 예방접종 실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예방접종 체계적 대응 ('21.1.8. 구성)

- (구 성) 6팀 30명으로 구성 · 운영(단장 : 시장 권한대행)
 - 유관기관 · 단체, 전문가와 소통 · 협업을 위한 「전문가 · 지역협의회」 별도 운영
※ 25개 「자치구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별도 구성(완료)
- (역 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제반사항 준비 및 접종기관 운영,
접종 대상자 관리, 접종 후 이상반응 등 백신 총괄 지원

접종계획 백신 예방 접종으로 사망 최소화 및 지역사회 전파 차단

- (접종목표) 11월 전까지 모든 시민의 70% 이상(약 608만명) 접종
 - 백신 임상결과 반영, 만 18세 이상 시민의 70%를 접종인원으로 고려
- (접종일정) 1분기 16만명(2.5%) → 2분기 175만 명(28.8%) 등
 - 중증진행위험, 의료 · 방역체계 및 사회안전, 코로나19 전파특성 등 고려

【 분기별 접종 대상 및 계획 】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가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요양병원 입원·입소자, 종사자 등 34,861명-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 등 26,28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재가복지시설 이용자·종사자 60,331명- 65세 이상 1,527,122명 (고령자부터 순차 접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인 만성질환자 1,217,602명- 성인 50~64세(70%)	
나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확진자를 치료하는 기관 종사자 8,381명-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87,617명- 1차 대응요원 1,47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1분기 접종대상 외) 133,74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인, 경찰, 소방 및 사회 기반시설 종사자 28,69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차 접종자, 미접종자 또는 재접종자 (항체유지기간 고려)
다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요양·재활시설 등 입소자·종사자 2,44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노숙인 등 시설 입소자·종사자 27,90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아, 청소년 교육, 보육 시설 종사자 181,927명- 성인 18~49세(70%)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2.24.부터 공급되면서 요양병원 입소자 등(만 65세미만) 대상으로 2.26.부터 첫 접종 시작

③ 민생경제 지원 대책 실시 및 시민안정을 위한 정보제공 철저

민생 지원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 1조 4,852억원 지원('21.2. 발표)

- (소상공인 긴급융자)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융자 지원 1조원
 - (대상)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코로나19 직접 피해업종
 - (내용) 연리 1.99%, 업소당 2천만원 ~ 1억원
-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직자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150억원
 - (대상) 서울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무급휴직 근로자
 - (내용) 1인당 월 50만원, 최대 3개월 150만원
- (문화예술·관광업) 정부지원 사각지대 문화예술·관광업 지원 111억원
 - (대상) 공연·축제, 예술인 및 관광 소기업 1,500개 업체
 - (내용) 예술·공연 지원 및 관광업 긴급 생존자금(업체당 1백만원) 지원
- (서울사랑상품권) 전통시장, 골목상권을 위한 서울사랑상품권 4천억원
- (공공안심일자리)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창출에 591억 투입
 - (대상)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
 - (내용) 환경정비, 공공서비스 지원 등 6,378명 공공 일자리 제공

시민 소통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실시간 코로나 정보 제공 및 소통

- (언론) 매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 실시
 - 서울시 코로나19 대응상황을 신속히 대시민 보고
- (홈페이지) 코로나19 정보 배너 홈페이지 상단 배치
 - 실시간 확진자 수, 백신접종 등 정보공유 지속 시행
- (캠페인) 경각심 고취 등 방역 협조 대시민 홍보
 - 방역 긴장감 유지, 검사 독려 등 소통을 통한 시민협조 촉구



〈경각심 고취 캠페인〉

V. 주요업무 추진계획

1. 민생을 책임지는 복지서울

2 함께 성장하는 미래서울

3. 쾌적하고 편리한 안전서울

4.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서울

5. 시민이 주인되는 민주서울

1. 민생을 책임지는 복지 서울

① 감염병 대응체계 및 서울케어 강화

② 안전하고 촘촘한 서울형 복지 구현

③ 틈새 없는 아이돌봄 생태계 조성

④ 전 생애에 걸친 균형되고 질 높은 교육경험 보장

1 감염병 대응체계 및 서울케어 강화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체계 구축 · 운영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준비·대응을 위한 추진단 구성

- 역 할 : 새로운 플랫폼 백신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제반사항 준비 및 접종기관 운영, 대상자 관리, 이상반응 관리 등 시행 총괄 지원
- 구 성 : 단장 - 시장권한대행 / 실무추진반장 - 시민건강국장(1반 6팀)

● 집단 면역 확보를 위한 예방 접종 실시

- 대 상 : 모든 시민을 원칙으로 하되, 접종 우선순위를 설정 순차적 접종
※ 접종대상자는 질병관리청 지침, 백신공급량·시기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방 법 : 예방 접종센터 및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 실시
- 시 기 : 백신 국내 도입시기에 맞춰 신속 추진(11월 전 시민 70% 이상 접종 목표)
- 비 용 : 접종비 무료 원칙(전액 국비)
- 백신 예방접종 대응 일정
 - ▶ 추진단 설립(1월) ⇒ 접종계획 수립(1월말) ⇒ 접종대상자 선정·안내(2월) ⇒ 접종기관 선정·관리(2월) ⇒ 접종시행(2월말~) ⇒ 이상반응 관리(2월말~)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 인프라 구축

● 코로나19 중환자 치료 전담 서울재난병원 설립·운영

- 위 치 : 서초구 원지동 34-11일대
- 사업규모 : 지상2층(연면적 8,982m²), 부지면적 19,720m²
- 주요기능 :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 병동
- 설치·운영 : 서울대병원 ※ 55,160백만원 서울대병원 자체 재원
 - ▶ 운영인력 : 총 220명 규모 (의사 30, 간호사 150, 기타일반직 40)
- 추진일정
 - ▶ 업무협약 체결('21. 1. 12, 서울시-서울대병원)
 - ▶ 개발행위 및 가설건축물 허가('21. 2월, 서초구 협조 필요) ⇒ 개원('21. 4월)



●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센터 건립으로 감염병 대응력 강화

- 위 치 : 동작구 보라매로5길 28(동작구민회관 부지)
- 사업규모 : 지상3층 지상4층, 연면적 9,597m²
- 주요기능 : 감염병 전문 응급실, 격리병동, 연구시설 등
- 추진일정
 - ▶ 도시관리계획 변경(4월) ⇒ 공유재산관리계획(6월) ⇒ 설계공모(9월) ⇒ 기본 및 실시 설계('22년) ⇒ 완공('24년)



코로나19 환자의 일상회복을 위한 건강돌봄서비스 제공

● 후유증 극복을 위한 4주 비대면 서비스 제공

- (대상) 감염병 전담병원 및 생활치료센터 퇴원자 1,000명
- (내용) 건강돌봄 kit* 활용, 보건소 의료진의 주 1회, 4주간 건강관리
 - * 코로나 건강돌봄 kit : 코로나 후유증 건강관리 교육자료 등 대상자에게 제공
 - ▶ 정서, 신체, 일상생활 등 퇴원자 적응 및 회복 프로그램(스트레스, 수면, 활동 등)
- 퇴원환자 「지역 돌봄 추진 협의체」 구성·운영으로 원활한 서비스 지원(3월)
 - ▶ 15인 이내로 구성, 감염병 전담병원→보건소 의뢰체계 구축 및 서비스 내용 등 자문

●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

- (구성)내과, 가정의학과 등 15명 이내로 전문가 풀 구성(건강돌봄 마을의사 등 활용)
- (내용)다양한 후유증 증상에 대한 심층상담 필요 시 자문

2021. 2.

건강돌봄 kit 개발

2021. 3.

협의체 구성 및 운영

2021. 3 ~

사업추진

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강화

●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에 대한 전문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퇴원자 심리지원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 자가격리자, 일반시민 ⇒ 25개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 고위험 대상자 심층상담 :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위기 평가 → 민간 전문가를 통한 심층상담 진행(최대 3회)→ 지속상담 필요시 지역전문기관 연계(심리치료)

● 언제·어디서나 마음건강서비스 제공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 구축

- 비대면 콘텐츠 개발·운영('21. 1월 오픈)
 - ▶ '모두다' : 심리상담 정보제공 플랫폼으로 다양한 심리지원 정보 제공(누적 이용자수 5,550명)
 - ▶ '누구나 챗봇' :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우울 상담 안내 (플러스 친구수 692명)
 - ▶ 접근성 강화를 위해 '서울톡' 연계, SNS 홍보, 심리지원 신규 콘텐츠 지속적 제공
- 비대면 생명지킴이 교육 S-생명지기 확대 : 6,875명('20년)→15,000명('21년)



〈누구나 챗봇〉

2 안전하고 촘촘한 서울형 복지 구현

선도적 복지모델을 통한 지역사회 돌봄체계 강화

■ 서울형 기초보장제 및 긴급복지 기준 완화로 제도적 지원체계 강화

- 촘촘한 복지 안전망 제공을 위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기준 개선
 - 노인·한부모가족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 '21.1월)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 소득기준 완화(기준 중위소득 43%→45%, '21.1월)
 - 모든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사회보장제도 변경 복지부 협의중)
※ 정부 '22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보다 선행, '21.6월 예정
-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서울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완화 연장(~'21.6월)
 - 소득·재산 등 지원기준 완화(중위소득 85%이하 → 100%이하)로 대상가구 확대
 - 무급휴직,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대상 확대

■ 돌봄SOS센터 및 긴급돌봄지원단을 통한 공공돌봄 안전망 구축

- 전 자치구 「돌봄SOS센터」 운영으로 촘촘한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 전담인력(돌봄매니저) 확충(430명→691명) 및 12개 자치구 본사업 추가전환

단계별	본사업 추진중(13개구)	본사업 예정(12개구, '21.12월)
자치구	성동, 노원, 은평, 마포, 강서구, 광진, 중랑, 도봉, 서대문, 양천, 영등포, 송파, 강동구	종로, 중구, 용산, 동대문, 성북, 강북, 구로, 금천, 동작, 관악, 서초, 강남구

※ 동단위 체계로 돌봄서비스(일시재가, 건강·식사 지원, 단기시설, 안부확인 등) 제공
- 코로나19 대응 및 현장수요를 반영한 돌봄SOS 서비스 확대
 - '방역·청소서비스 및 세탁서비스' 추가 등 8대→10대 서비스로 확대('21년 상반기)
- 공적제도 자격기준 탈락 위기가구를 위한 돌봄지원 기능강화
 - 기준 미해당자도 긴급상황일 경우 예외제공토록 완화(현재 어르신·장애인·민50세이상 지원)
 - 지원 자격확인 소득조회에 시간 걸리거나 애매한 경우 '선지원 후검증' 적극 시행
- 코로나19 돌봄수요 긴급돌봄지원단 확대로 비상돌봄체계 구축
 - 긴급돌봄 수행인력 추가확보(60명→200명)로 돌봄수요 급증 대비
 - 지원사업 유형을 재가방문, 격리시설 동반입소에서 코호트 격리 시설 내 대체 돌봄인력 파견, 전담병원 동반 입소까지 확대(2종 → 4종)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대응력 제고

촘촘한 발굴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및 복지공동체 강화

● 복지수혜자 대상 연간 모니터링 의무화 시행

- 전체 복지대상자별 위기도(1~4단계 및 위기단계) 설정 및 위기도별 연간 방문 모니터링 의무 실시를 통해 욕구별 서비스 연계 (* 기준대상 및 신규발굴 등 약 45만가구)
- 숨은 위기가구 대상 기획발굴 조사 실시('21.1월~)
 - ▶ 주거급여수급자, 차상위자 대상(172,470가구) 실태 및 위험·위기 정보 확인

● 지역주민 주도의 복지공동체 통합·운영으로 민관협력체계 강화

- 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기존 동단위 복지공동체사업(이웃살피미, 나눔이웃 등 6개)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이웃살피미 2개 사업으로 통합하여 기능 명료화('21.2월)
- 복지공동체사업에 중복 참여자(통·반장 등)를 정비하여 인적부담 경감
- 지역사회와 밀접한 생활업종 종사자(집배원, 병원, 편의점 등)의 참여 확대
※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이웃주민 관심갖기”(가칭) 캠페인 추진 ('21.2.10 ~ 5.10)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현장인력 역량 제고 및 업무효율화 지원

● 동장·팀장 등 찾동 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 제고를 위한 체계적 교육실시

- 동장자치역량, 실무자 주민감수성, 정신건강 등 현장 수요에 대응 가능한 교육구성
 - ▶ 주요 교육내용 : 찾·동의 핵심가치, 주민자치사업의 이해, 사례관리 등
- 사회복지직공무원 의무교육 이수제 신규 도입('21년 4,784명 대상 추진)
 - ▶ 찾동미래학교 7개 과정(기본교육 2, 전문교육 5) 지정·운영

● 이슈 분석 모니터링·컨설팅을 통한 자치구 문제 해결력 강화

- 복지·건강·마을 분야 등 주기적 운영상황 파악 및 이슈·문제점 분석(상·하반기)
- 특정 이슈(보편방문, 정신건강 등) 모니터링에 따른 문제해결 필요시 컨설팅 지원
 - ▶ 현장 위기 신속대응을 위한 ‘광역컨설팅단’ 정책 컨설팅 병행
- 찾동 배치인력 근무실태 파악 및 현원 유지 점검 관리 강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장애인 자립생활 실현

장애인 맞춤형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복합 복지·문화공간 어울림플라자 본격 착수

- 추진일정 : 실시설계(5월), 착공(9월), 준공('24년)
- 조성규모 : 지상5층/지하4층(연면적 23,758㎡)
- 주요시설 : 장애인 특화시설, 문화·체육시설 등



● 중증 뇌병변장애인 맞춤형 시설 신규 확충

- 교육·건강·돌봄을 종합 제공하는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 1개소('20년) → 3개소('21년)
- 최중증 뇌병변장애인 전용 긴급 돌봄시설 : 모델개발('21.4월) → 조성('21.10월)

● 발달장애인, 농아인, 시각장애인, 장애인가족 지원시설 확대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전 자치구 확대) : 23개소('20년) → 25개소('21년)
- 장애인가족지원센터(전 자치구 확대) : 22개소('20년) → 25개소('21년)
- 농아인 쉼터 : 17개소('20년)→18개소('21년), 시각장애인 쉼터 : 2개소('20년)→4개소('21년)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여건 강화 및 활동편의 서비스 확대

● 장애인 일자리 확대 : 7,055개('20년) → 7,569개('21년)

-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양질의 공공일자리 발굴·확대(3,399개)
 - ▶ 시각·청각장애인 등 만족도가 높은 일자리(3,139개)
 - ▶ 최중증,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260개)
- 민간기업과 연계, 지속가능하고 생산적인 일자리 발굴·확대(4,170개)
 - ▶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1,150개), 커리어플러스센터(170개) 운영
 - ▶ 직업재활시설(138개소) 활성화를 통한 장애인 자립·자활 강화(2,850개)



〈발달장애인 일자리연계〉

● 장애인 지원주택 확대 및 주거 서비스 강화

- 장애인 맞춤형 지원주택 공급물량 확대 : 142호('20년) → 212호('21년)
- 자가·독립거주 장애인 대상 주거서비스 확대 : 40호('20년) → 80호('21년)

●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전격 실시

- '20년 전국 최초로 서울시에서 시행하여 '21년 정부 시범사업으로 확대 견인
- 만65~73세 노인장기요양 전환자 중 월 60시간 이상 활동지원 감소자(97명) 대상

● 스마트 발달트레이닝 장애인복지관 시범운영(2개소, '21.6월)

- 스마트 디지털 놀이터 등 발달장애인 사회상호작용 및 감각통합치료 추진



어르신·중장년의 활기찬 노후와 안심·안전한 돌봄환경 제공

■ 어르신 안심 돌봄환경 조성을 통한 가족부담 경감

●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어르신 복지인프라 확충

- 수요대비 공급 부족 지역 중심으로 「실버케어센터(요양시설)」 우선 확충
 - 공립요양시설 6개소(시립 5, 구립 1), 치매전담형 시설 전환 2개소(개보수 2)
 - 치매전담실 적용 시립동대문실버케어센터 민간위탁 운영('21. 7월)
- 시립양로시설 운영 개선방안 연구, 명칭개선, 시설 개·보수
- 수락양로원 제로에너지건물(옥상녹화, 태양광설치 등) 전환



〈동대문실버케어센터〉

● 서비스 공공성 확보를 통한 어르신 돌봄서비스 품질 향상

- 기초수급자 및 취약계층 어르신(46,000명)에게 재가어르신 맞춤돌봄서비스 제공
 - 돌봄 수행인력 확대 2,790명('20년) → 3,020명('21년)
- 좋은돌봄 인증제 247개소(주·야간보호 191, 노인의료복지 52, 방문요양 4) 운영
- 돌봄종사자 및 돌봄가족 지원 : 센터(4개)/쉼터(8개) 운영, 돌봄종사자 처우개선 추진
 - 무료돌봄 접종비 지원(27,000명), 대체인력지원(5,000명), 처우개선비(1,240백만원)

● 취약 어르신 대상 IoT 안전기기 설치 및 AI 보급 시범사업 추진

- 안전관리 스마트 기기 보급 확대 10,000가구('20년) → 12,500가구('21년)
- 돌봄로봇, AI 스파커 등 인공지능 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 자치구 공모사업 시행('21.3월)

■ 중장년·어르신의 새로운 인생 설계 지원 및 소득기반 제공

● 중장년 인생 재설계를 위한 50플러스 인프라 확충

- 권역별 50플러스캠퍼스 및 자치구 50플러스센터 확충 : 13개소('20년) → 16개소('21년)



※ 동남캠퍼스(50플러스 소셜벤처&기업연계, '21.12월 준공예정)

● 경험과 전문성을 살리는 어르신 및 중장년 일자리 발굴 및 참여 확대

- 어르신일자리 참여기준 확대 및 산업변화에 맞는 일자리 지원 : 76,000개('21년 목표)
- 중장년을 위한 보람일자리 확대 2,800개('20년) → 3,281개('21년)
- 보람일자리 활동기간 연장 : 3개월~11개월('20년) → 6개월~11개월('21년)

3 틈새 없는 아이돌봄 생태계 조성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환경 조성

- 지역규모와 수요를 고려한 균형적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향상 : 46%
 - 정원이 많은 대·중규모 민간시설 매입·전환 유도
 - 시설부족으로 이용률이 낮은 강북권(국공립 평균 이용률 43%이하) 우선 지원으로 격차 해소
-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 및 지역아동센터 공적 지원 강화로 초등 보편돌봄 실현
 - 일반·융합형 키움센터 확충 194개소('20)→249개소('21), 거점형 키움센터 조성 2개소('20)→5개소('21)
 - 지역아동센터 법인·조합 전환 확대 : 195개소('20)→250개소('21), 회계·운영 컨설팅 지원
-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틈새보육 및 함께돌봄 확대
 - '거점형 야간보육' 어린이집(169→250개소), '주말·휴일' 365 권역별 어린이집(4→10개소) 확대
 - 아이돌보미 신규 양성으로 미스매칭 해소(219명→500명, 총3,851명), 육아공동체 지원 공모(25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공공성 강화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서울시 아동학대예방 협의체 운영(2월 구성, 분기별 회의) ※ 실무TF 수시 운영
 - 市 + 유관기관(복지부, 서울경찰청, 시교육청, 자치구,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협력체계 강화
- 아동학대전담 공무원 및 아동시설 종사자 전문성 강화
 - 市 전담팀 신설('21.1월), 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확충(24구 58명('20)→ 25개구 76명('21))
 - 서울형 아동학대조사 매뉴얼(2월) 및 사례관리 매뉴얼(6월) 제작·배포
 - 아동복지시설 돌봄종사자(471명) 보수교육 및 신고의무자·공공기관 종사자 학대예방교육 강화
- 위기아동 전수조사를 통한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예방체계 구축
 -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고위험아동 전수조사 실시(35,000여명, 2~3월)
 - 「방관자」에서 '감시자'로 인식개선 캠페인(2월~), 아동학대예방시스템 구축 연구 추진(6월~)

모든 가족을 아우르는 따뜻한 서울

- 다양한 가족 형태별 맞춤형 지원
 -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 가사·방역(가구당 월2회('20)→월3회 6천건('21), 아이돌봄(130건('20)→237건('21))
 - 다양한 1인가구 맞춤형 정보서비스 지원 : 1인가구 '온라인플랫폼' 시범 운영(하반기)
- 외국인주민의 보편적 일상생활 보장 및 안정적 정착 지원
 - 외국인·다문화 사회적응교육(법률·세무·노무·비자 등 10개분야), 외국인지원시설 재구조화 추진('21-23년)
 - 다문화가족 취업중점기관 운영을 통한 취업지원, 자녀 방문학습(1,200명) 및 진로진학 지원 등

4

전 생애에 걸친 균형되고 질 높은 교육경험 보장

자별 없고 폐적한 교육환경 조성

●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한 입학준비금 정책 도입, 고교 무상교육 전 학년 확대 시행

- '21년부터 서울 지역 모든 중·고교 신입생에게 30만원 입학준비금 지원(총 416억원)
- '19년 고3부터 시작된 무상교육을 '21년부터 전 학년 전면 시행

● 학교 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 및 체육관 확충

- 시·교육청과 협력 대상학교 적극 발굴, 주민이용시설 35개소 건립 지원
 - ▶ 복합화시설 건립(10개교) : 2개교('19) → 3개교('20) → 1개교('21) → 4개교('22)
 - ▶ 실내체육관 건립(25개교) : 6개교('19) → 7개교('20) → 6개교('21) → 6개교('22)



【 복합화시설(도봉 세그루페션디자인고) 】



【 복합화시설(주차장)(강서 등서초) 】



【 실내체육관(노원 상명중) 】

● 지역자원 통합 관리 및 체계적 지원을 통한 방과후 활동 활성화

- 市·區에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서울 전 지역에 꼼꼼한 방과후 지원체계 구축
 - ▶ '20년 市 센터 설치('20.1.17. 전담팀 신설), '21년 25개 匸 센터 설치 운영 추진
- 온라인 플랫폼 구축으로 방과후활동 지원 통합 관리 및 원클릭 정보 제공

안전하고 질 높은 친환경급식 지원 강화

● 친환경 무상급식 10년의 완성, 초·중·고 전학생에게 지원 확대

- '11년 공립초를 시작으로 도입 10년 만에 모든 학교(전 학년)로 확대
 - ▶ ('20년) 초중고(2~3학년) 761천명 ⇒ ('21년) 초중고 전체 835천명(1,348개교)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11	공립초 198천명		
2012~2018		초·중 628천명	
2019~2021			초·중·고 전체 835천명

●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식재료 공급 확대

- 공급품목 다양화, 계약재배, 산지관리 강화로 친환경 농산물 공급 확대
-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에 걸친 안전성 관리로 부적합 식재료 사전 차단

● 자치구 참여 확대로 지속 가능한 도농상생 공공급식 확산

- ('20년) 13개구 1,760개소 → ('21년) 14개구 1,890개소로 참여 확대
- 공급품목 다양화 및 안전성 검사 강화로 공공급식 활성화 도모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평생학습 도시 조성

● 포스트코로나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한 미래지향적 평생학습 체계 구축

- 공공·민간 영역을 아울러 생애단계별·분야별 총괄하는 평생교육 2030 기본계획 수립(21.5월)
- 市-區-洞 촘촘한 평생학습 협력기반 구축 및 市의 컨트롤타워 역할 정립
- 평생학습포털 고도화를 통해 실시간 화상교육, 쌍방향 교육 등 비대면 학습환경 조성



● 교육 소외계층을 포용하는 평생학습 지원 강화

- 노인·다문화가정·장애인 등 교육 소외계층의 디지털 문해역량 강화
 - ▶ 디지털 문해학습장 확대('20년 7개소 → '21년 13개소), 디지털 문해교육 실시('20년 30회 → '21년 70회)
- 경계선지능인 실태분석('21.9월) 및 지원센터 설치 등 체계적 지원계획 수립('22년)
※ 경계선지능인 : 지적장애에 해당되지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지적능력(IQ 71~84)을 가진 자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 대안교육기관 지원 확대 및 제도권 밖 청소년에 대한 세심한 복지정책 마련

-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지원 확대 : **25개소('20) → 30개소('21) → 40개소 이상('22)**
 - ▶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입학준비금 신설(1인당 30만원), 급식비 지원 확대(44개소→71개소)
- 퇴소 후에도 가정 보호·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출청소년에게 자립수당 30만원 지원

● 온라인 플랫폼 구축, 「청소년 전용시간제」 등 청소년시설 본연의 기능 회복

-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도 제약 없는 비대면 온라인 운영체계 구축('21.10월)
 - ▶ VOD, 쌍방향(영상) Live 기능 등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모바일 기반 플랫폼
- 청소년센터 3개소(성북·은평·강북)에 '전용시간(요일)제' 시범사업 도입

● 학교 밖 활동을 지원하는 청소년시설 지속 확충

- 양천음악창작센터 및 종로청소년센터 신축 추진, 문화의 집(4개소) 건립 지원



【 양천음악창작센터('22년) 】



【 종로 청소년센터('24년) 】



【 도봉 문화의 집('21년) 】



2. 함께 성장하는 미래 서울

① 경제위기 조기극복 및 미래성장동력 고도화

② 민생경제 회복 및 사회적 협력성장 생태계 강화

③ 민간·지역과 협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공급 및 고용회복

④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존중특별시 구현

⑤ 연결·융합·혁신을 통한 미래 스마트도시 생태계 선도

⑥ 관광업 위기극복 및 미래 성장기반 조성

⑦ 품격 높은 문화체육도시 서울 조성

1 경제위기 조기극복 및 미래성장동력 고도화

소비진작·판로확대 지원을 통한 민생경제 신속회복 지원

■ 중소기업 제품 온라인 소비 촉진 위한 캠페인 “ON서울마켓 시즌2” 추진

● 新 소비 트렌드 선점을 위한 ‘라이브커머스’ 시장 본격 진출

- 서울유통센터 내 ‘S-Live스튜디오’ 구축, 기획(매주 목) / 상시 라이브 방송 편성
- 「제1회 서울 라이브커머스 판매대전」 개최('21.6월) 통해 판매 촉진

●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내 기획전 편성, 판매 프로모션 및 수출 지원

- (국내) 온라인마켓(6개), 데이터홈쇼핑, 종합몰 등 기획전 개최 및 상설입점 지원
- (해외) 아마존(美), 알리바바(中), 쇼피(싱가포르) 등 7개 플랫폼 내 브랜드관 운영 등

● 서울 대표 온라인 판로지원 브랜드로의 육성을 위한 ‘ON서울마켓’ 인지도 제고

- (온라인) 페이스북, 웨이보, 인스타그램 등 SNS를 활용한 ON서울마켓 홍보
- (오프라인) 市 홍보매체 활용 대시민 홍보 및 판촉물 등을 통한 매출증대 견인

■ 패션기업 국내외 비대면 유통·판로 확대 지원 가속화

● 패션분야 비대면 유통 전진기지 ‘V-커머스 스튜디오’ 본격 운영 (5천개사 지원)

- DDP패션몰 내 제품사진 촬영, 라이브 방송, 디지털 패션쇼 등 위한 다용도공간 운영
- 패션제품 촬영에 최적화된 장비 구축, 활용 위한 교육 실시 및 전문인력 상주

● 패션기업 비대면 글로벌 판로 지원으로 수출 확대 (100개사 지원)

- 세계 최대 온라인 플랫폼 ‘아마존’과 협업 통해 입점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제공
- 제품 해외배송비 및 마케팅비 등 업체당 300만원 지원으로 기업부담 경감

■ 도농상생 실현을 위한 농수산물 판로지원 활성화

● 안전한 농수산물 소비 촉진 위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

- (지원대상) 임신부 및 출산 후 1년 이내 임산부 총 45,080명
- (지원품목) 유기·무농약 농수산물, 가공식품 등 (1인당 연간 48만원 상당)

● 온·오프라인 유통기업 협력 확대를 통한 도농상생 판매 활성화

- 11번가, 네이버쇼핑 등 온라인 유통채널 협력 통해 지역 농수산물 판매 촉진
- 롯데백화점, 지하철 역사 및 상생상회 등 20여개 오프라인 매장 활용

기업의 디지털전환 지원으로 비대면 산업 생태계 촉진

수출지원 온라인 플랫폼 “Trade On” 본격 운영

● 우수 수출기업(700개사) 대상 비대면 수출지원 플랫폼 운영 개시 ('21.2월)

-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 매칭 상담회, 온라인 전시관, DB 축적, 상담 신청 등
- (지원 인프라) 국제유통센터 내 화상상담실 및 수출상담실 조성



〈Trade On 메인화면〉



〈Trade On 수출상담실〉



〈온라인 화상 상담실〉

● 글로벌 무역 DB 구축으로 양질의 진성 바이어 발굴·유망 중소기업 매칭

- 사전 시장조사 및 글로벌 신용조사기관 협력 통해 우수 바이어 후보군 선별
- 연 20회 이상 바이어·기업 매칭 상담회 개최하여 진성 바이어 확보 (150개사)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가속화 및 비대면 사업화 지원

●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및 기술매칭 시범운영

- (1단계)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시작을 위한 기초역량준비 컨설팅 (90개사)
- (2단계) AI·데이터 활용 제품·서비스에 대한 개발 수요가 있는 중소기업과 솔루션 보유 AI 기업을 연결, 심사 통해 개발자금 지원(총 5억원)

● 중소기업 R&D 지원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대응 인프라 구축

- 코로나19로 수요 증가한 비대면 산업 분야 기술개발 지원(24개 과제 / 41억원)
 - ▶ 방역의료, AI, 핀테크, 블록체인 등 포스트 코로나 특화 지원
- 참여기업의 재정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R&D 자금을 '21년 상반기 내 지급 완료

'21. 2월 R&D 지원사업 공고	▶	'21. 4~5월 지원과제 선정 평가	▶	'21. 6월 과제선정 및 자금지원
------------------------	---	-------------------------	---	------------------------

● 중소기업 재택근무 시스템 정착 지원 (50개사 / 총 3억원)

- 중소기업의 재택근무 도입을 위한 설비·시스템(온라인 협업 툴 등) 지원·운영
- 사전 컨설팅, 사후 참여기업 우수사례 발굴 및 성과 확산으로 사업효과성 제고

성장지향의 스타트업 육성 전략으로 서울 창업생태계 고도화

■ 스타트업의 스케일업 가속화를 위한 특화 지원체계 구축

● 핵심 창업지원시설의 기능 특화를 통한 스케일업 지원

- (서울창업허브) 글로벌 네트워크, 해외시장 진출 지원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창업허브창동) 언택트 기반 마케팅 판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21.3월 개관)
- (창업성장센터) 정부출연 기술이전 거점 및 중개 R&D 연구센터 운영
- (창업허브성수) 도시문제 해결 스타트업(소셜벤처) 집중 보육체계 구축(40개사)

● 민간 주도 유망기업 발굴 및 성장지원 프로세스 정착

- 서울창업허브가 도입한 민간 전문보육체계 핵심 창업시설로 확대
- 민간파트너십을 통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 300개사 발굴·집중 육성

■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집중 지원

● 글로벌기업 기술수요와 스타트업 혁신기술을 매칭해 해외시장 선점

- 글로벌기업 20개사와 스타트업 100개사를 공동 발굴·보육을 통한 기술제휴

● 해외 현지 창업지원 거점을 구축을 통한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가속화

- 혁신기술 기업의 해외 현지 기술검증(테스트베드) 및 판로 지원 (10개사)
- 해외 정부·기업 등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 스타트업 현지 법인화 (20개사)

● 글로벌 유통 네트워크 확보로 스타트업 제품의 글로벌 세일즈 지원

- 하드웨어 액셀러레이팅·양산 연계 중국 등 글로벌 온라인 세일즈 IR (30개사)

■ 스케일업 가속화를 위한 성장기업 대상 투자·R&D 지원

● 성장단계 지원을 위한 대규모 투자재원 조성 및 전략적 투자

- 유망분야 성장기 스타트업 집중투자 위한 전용 펀드 5,600억원+α(누계) 조성
- 투자재원(VC)과 투자수요의 적극적 연계를 통한 성장투자 집중 지원

● 혁신기술 기반 기업 성장을 위한 테스트베드 실증사업 지속 추진

- 4차 산업 혁신기술 보유 중소·스타트업에 시정현장 실증기회 제공(30개사 이상)
-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과제형' 실증 확대('20년 9개 → '21년 15개 과제)
- 포스트코로나 대응 방역·바이오·메디컬 특화 실증 확대('20년 5개 → '21년 10개 과제)

혁신기술 기반의 고부가가치 신성장 클러스터 조성 가속화

■ 양재를 핵심거점으로 AI 산업 생태계 활성화 본격 추진

- AI 기업의 성장 가속화를 위한 대내외 자원 연계 등 전방위 지원
 - (기업발굴) AI 멤버십 통한 기업 발굴 및 유망 창업팀 사업런칭 지원
 - (자금·기술) R&D, 투자·기술 지원 강화로 기업 성장기반 구축
 - (판로개척) 대기업 협력 및 기존 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新 사업 기회 창출
 - (해외진출) 글로벌진출 전문 컨설팅 및 세계대회 개최로 글로벌 역량 강화
- 현장실무전문성 및 융합연계 능력을 갖춘 AI 인재 양성 (연 700명)
 - 비전공자, 전공자·실무자 등 대상별·단계별 맞춤형 AI 교육 제공
- 기업 입주공간, 고성능 컴퓨팅, 앱커시설 등 핵심 인프라 구축 강화
 - 입주공간 확충(78개→113개),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지원 확대(45개사→70개사)
 - AI 지원센터 건립('21.5. 착공/ '23.5. 개관예정), 양재R&D캠퍼스 기본계획 수립('21)

■ 홍릉 강소특구 중심으로 바이오·의료 글로벌 클러스터 조성

- K-BIO 전략산업 특화 지원 2단계 인프라 확충 가속화
 - IT 융합형 헬스케어 분야 특화 창업공간 'BT·IT 융합센터' 개관('21.7.)
 - K-BIO·방역 특화 '글로벌협력동'('22), '첨단의료기기개발센터'('25) 조성
 - 도시재생, 창동·상계 연계한 K-BIO 산업 전 주기 지원 시스템 구축
- 강소연구개발특구 본격 운영으로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기반 구축
 - 과기부 협력 및 홍릉 강소특구 운영협의체·사업단('20.10. 구성) 운영
- 혁신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K-BIO 글로벌 진출 지원
 - 9개 병원, 오송 등 바이오 클러스터, 서울의 주요 바이오산업 거점 및 글로벌 협력 추진

■ 여의도와 마포를 잇는 핀테크·블록체인 산업 허브화 추진

- 서울핀테크랩 기능·역할 확대를 통해 여의도를 핀테크 중심지로 육성
 - 국내 최대 핀테크 창업생태계 '서울핀테크랩' 운영 고도화 (100개사 입주)
 - 종사자 간 교류 활성화 위한 서울국제금융오피스 내 금융핀테크 전용공간 제공
 - 핀테크 인재 양성 위한 디지털금융전문대학원(전문) 및 핀테크아카데미(실무) 운영
-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특성화 지원 강화
 - 블록체인 기술 사업화 및 실증기회 확대 (R&D 35개사, 테스트베드 3개사 지원)
 - 서울핀테크랩 및 블록체인 학회 연계로 핀테크·블록체인 기업 동반성장 도모
 - 블록체인 관련 대학생 및 종사자 집중 양성, 우수인재 취업연계 지원

ICT 기반의 혁신을 통한 도시형 제조업의 도약

G밸리 내 IoT 등 첨단기술 융합 및 기업지원 인프라 혁신

● 집적산업의 고도화 및 산업간 융합 지원을 통해 신성장 동력 확보

- 의료기기 개발 지원센터 조성('21.8. 개관 예정)을 통한 G밸리 집적 지원
- 스타트업의 융복합 HW 스케일업을 위한 원스톱 지원(메이커스페이스 G캠프, 도전숙)
- IT·제조업의 융복합 기술상용화를 위한 G밸리 기업 R&D 지원 강화

● G밸리 내 부족한 기업 및 종사자 지원 인프라 확충

- 문화복지센터·G밸리산업관 개관('21.9.), 다목적체육관 조성('21.4. 착공 / '22.6. 개관예정)
- G밸리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통한 보행환경 개선('21.5. / 1.6km)

● G밸리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미래 성장을 선도하는 산업단지 육성('21.5.)

- 산업교류 혁신활동 공간 및 기업·종사자 지원시설 확보를 위한 전략거점 개발
- 산업단지 내 공원·녹지 확충 및 편안한 보행환경 확보, 산업간 융복합 촉진 등

ICT 기반의 제조업 공정 혁신을 위한 스마트앵커 조성

● ICT 기반의 제조업 공정화 혁신을 위한 도시형 기반시설 조성

- (스마트앵커) 협동조합 방식의 일감 창출 및 협동화 사업 추진 (총 5개소)
 - ▶ 성수수제화('22.7. 준공), 중구인쇄('21.10. 착공), 마포출판인쇄('22.4. 착공), 중랑봉제('21.12. 착공), 중구봉제('21.4. 설계)
- (솔루션앵커) 신규일감 창출 및 산업문제 해결 (도봉, 성북, 강동 / '21.10. 준공)
- (메이커스페이스) 창업 아이디어 제품화·양산 (개봉 / '21.9. 준공)

● 의류제조업 집적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공정화 지원

- (대상/규모) 50개 이상 의류제조업체 직접지 4개소 (성동, 동대문, 광진, 중랑)
- (지원내용) 집적지 특성에 맞는 공동인프라(CAD, CAM 등) 조성 (자치구 협력)

패션산업 선도를 위한 서울패션허브 중심의 혁신 클러스터 조성

● 동대문 상권 중심지 내 패션허브 선도사업 핵심 지원시설 개관 및 운영

- (디지털팩토리) 의류제품 기획·생산 공정의 디지털화 지원 ('21.2. 개관)
- (서울패션창업허브) 창업·초기사업 안착, 글로벌 성장 등 지원 ('21.3. 개관)
- (패션아카데미) 패션·IT 융합 최신교육으로 기획·생산·유통 인재 양성 ('21.4. 개관)

● 패션·봉제 지원사업 추진체계 일원화를 통한 정책성과 제고

- 市·디자인재단의 패션·봉제 지원사업 일원화(패션창작스튜디오, 권역별 패션지원센터 등 市로 이관)

미래 환경변화 대비 역량 강화

■ 캠퍼스타운 혁신을 통해 청년희망·지역경제 활성화

- 창업수요 충족 및 성장기업 전용공간 마련으로 대학주변 창업생태계 활성화
 - 캠퍼스타운 신규 공모, 성장기업 전용공간 조성(전대특별계획구역), 창업기업 판로 지원
- 주민체감도 제고 위한 지역밀착형 (가칭)지역활성화협의회 구축('21.3.) 운영
 - 대학, 市, 시의회, 區, 주민·상인협의체가 함께하는 지역상생·협력 강화



■ 인프라 조성, 대회 개최 및 기업 지원으로 콘텐츠 산업 육성

- 서울 영화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서울시네마테크' 본격 추진
 - 중구 충무로에 위치, 상영관(3개)·도서관 등 조성 ('22년 준공 예정)
- 국내 최초 AR·VR 기기/서비스 평가 및 인증시스템 구축
 - 국비 80억원 확보, DMC 'XR 코워킹오피스' 내 AR·VR 실증기반 공간 조성('21.6.)
- e스포츠 대회 개최를 통한 e스포츠 종주국으로서의 위상 강화
 - 국산게임 활용 'Seoul Cup' ('21.9.),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 참가 지원('21.11.)
- 1인 미디어 산업 성장기반 조성 및 비즈니스 지원 강화
 - '크리에이티브 포스(1인 미디어 창작자 그룹)' 운영(누적 700명), 공간 지원(스튜디오, 편집실 등)



〈서울시네마테크〉

■ 도시농업 거점공간 조성 및 가락시장 현대화 추진

- 도시농업 가치화 중요성 확산을 위한 권역별 '서울농업 상징공간' 조성
 - [컨트롤타워] (가칭)농업공화국('23.11. 준공 예정), [남부] 강감찬도시농업센터('21.5. 준공), [북부] (가칭)중랑구 청남공원('21.12. 준공) ※ (동부) 강동파믹스센터('18.5. 준공 완료)
- 농수산물 유통 개선을 위한 가락시장 현대화 추진
 - 도매권 1공구(채소2동 256개 점포) 건립 공사 추진('21.1.~'23.8.)
 - 도매권 2공구(채소1동 512개 점포, 수산동 450개 점포) 배치 확정 및 설계 추진('21~'26)

2 민생경제 회복 및 사회적 협력성장 생태계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생계절벽 위기극복을 위한 비트복 제공

코로나19 위기 소상공인 생존 지원

● 중단없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 : '21년 총 5조 5천억원

- 신용보증 공급(3조 5천억원) : 신규 2조원 + 기한연장 1조 5천억원
- 자금 융자지원(2조원) :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1조8천억원 + 기타 2천억원

●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 및 판로개척 지원

- 교육·컨설팅, 협업화, 재기지원 등 소상공인 19,000여개 업체 경영지원
- 온라인 오픈마켓 진입 4배 확대('20년 300 → '21년 1,200개소) 등 판로확대 지원

● 전통시장 경영 및 시설 현대화

- 온라인 장보기서비스 구축 등 총 143개소('20년 73개소 + '21년 70개소) 도입
- 화장실·주차장 등 시설개선(58개 시장), 화재안전점검·교육(4,400여개 점포) 등

● 지역주민 주도 생활상권 혁신 지원 : 19개 기반사업, 5개 육성사업

- 지역주민·상인협의체 중심, 지역주민이 원하는 생활상권 기반 조성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신속한 소비촉진 및 골목상권 활력강화

● 서울사랑상품권 조기발행으로 얼어붙은 소비심리 신속히 회복

- 연간 발행규모 8,100억원 중 4,000억원 연초 조기 발행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 소비자 상품권 10% 할인구매 및 가맹점 결제수수료 **zeroPay** 혜택 제공

● 사회적 거리두기 피해 소상공인 지원 서울사랑상품권 특별발행

- 거리두기 2.5단계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영업피해 업종 및 집중 피해지역 선별지원을 위한 선(善)결제 서울사랑상품권 등 특화 상품권 발행

● 상품권 결제 데이터 활용 소상공인 정책 수립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체계 마련

- 지역·시기·상권별 결제시간, 소비성향, 업종 등 빅데이터 분석 및 연구
- '20년 서울사랑상품권 결제 데이터를 분석하여 상권별 효과성 도출

공정·상생 가치가 실현된 경제생태계 구축

불공정 거래관행·민생침해 근절을 위한 시장감시 강화 및 제도정착

- 빅데이터 활용한 시의성 있는 불공정·민생침해 이슈 적기 발굴('21.상반기)
 - 공공데이터·민간데이터 분석을 통한 시의적 이슈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온라인 플랫폼 거래, 유사수신행위 등 온라인 거래 급증에 따른 신종 불공정·민생침해 실태조사 실시
-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을 위한 공정한 상가임대차 기반 마련
 - 임대료 인하 동참 착한 임대인 대상 서울사랑상품권 30~100만원 차등지원
 - 코로나19 대응「상생 임대료」 도입('21.3월)으로 임차상인에 대한 피해구제 지원
- 코로나19 소비자 권익보호 및 민생침해 근절 강화
 - 신종 발생 소비자 피해 분야·유형에 대한 소비자피해주의보 적극 발령
 - 불법대부업·불법다단계·상조업 등 피해상담 기반으로 한 테마형 집중 점검 실시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상생가치 사회적경제 확산'

- 코로나19피해 사회적경제기업 경영위기 극복 지원
 - 인건비, 사회보험금 지원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창출 지원(150억원, 총1,800명)
 - 집합금지·제한 등 코로나19 피해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 지원(125억원)
 - 市·자치구 유휴공간 활용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등 조성 3개소(개봉·가락외 1개)

비대면 산업 클러스터('21.4월 개관)	먹거리 클러스터('21.4월 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로구 개봉동 499■ 임대산업시설 5층~6층■ 연 면적 : 1,093m²■ 기업입주공간(14실), 미디어룸, 교육공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시장 청과동 3층■ 연 면적 : 1,130m²■ 기업입주공간(21실), 공유주방, 공유공간 등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공동체 육성

- 골목상권 기반 지속가능성을 갖춘 소상공인 협업체 집중지원(15개)
- 지역주민 주도의 공동주택 단지내 경제공동체 육성(15개), 주민기술학교 운영(8개)
- 우리동네 나눔반장 등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돌봄체계 구축·운영(13개 자치구)

판로확대를 통한 가치소비 확산 및 인식제고

-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공공구매 지원 : 목표 1,700억('20)→1,800억 예정('21년)
- 제주·김해 공항 등 복합판매장 확대, 라이브커머스 활용 유통채널 다각화

3 민간·지역과 협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공급 및 고용회복

■ 공공일자리사업 선제적 추진 및 취·창업 지원서비스 강화

●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 일자리대책 추진 (약 2만 2천여명)

-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직 근로자 1만명에 3개월간 최대 150만원 지원(150억원)
- (공공일자리) 상반기 중 취업취약계층에 공공일자리 8,740개('21년 목표의 75%) 제공
 - (목표) '21년 공공일자리 1만 1,697개(777억원), 상반기 내 8,740개 제공(565억원)
 - (대상) 저소득층, 장애인, 청년, 코로나19 피해자 등 취업 취약계층
 - (분야) 공공서비스(재해예방 등), 방역(시설소독 등), 지역일자리(일회용품 줄이기 등)

구분	계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지역방역 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21년	11,697	8,758	1,726	833	380
상반기	8,740	6,378	1,726	432	204

● 취업·상담 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12만 3천 명)

- 일자리카페 AI 면접, 자기소개서 컨설팅 등 상시 취·창업 지원체계 구축
- 청년구직자 취업날개서비스 지원범위(만34세 → 39세)·운영업체(3 → 5개소) 확대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협업 통한 취업지원서비스 확대(경단여성, 영세 자영업자 등 대상)

합계(명)	일자리카페	취업날개 서비스	일자리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123,450	82,000	37,000	4,000	450

● '서울에서 지역으로' 새로운 기회를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470명)

-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의 장기·안정적 추진 위한 인센티브 마련
 - 근속기간에 따른 차등수당지원 등 최대 90만원, 인턴비용(생활임금 기준) 지원 등
- '지역창업'의 성과 확산을 위한 우수팀 집중 지원 및 단계별 맞춤형 지원
 - 11번가, 현대백화점 등 유통기업 협력을 통한 판로연계 지원 및 성과 홍보·확산
 - 창업자금(최대 7천만원) 등 단계별 지원을 통한 창업의지 고양 및 지역정착 유도

구분	1단계 지역조사	2단계 사업화	3단계 후속지원
	규모	200명 내외	50팀 내외
지원	1인당 100만원 (지역이동 및 현지조사비)	팀당 최대 2천만원 (사업비)	팀당 최대 5천만원 (사업비)

민간기업 취업연계 강화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취업역량 제고를 통한 뉴딜일자리 민간취업연계 강화 (4,200명)

- 포스트코로나 고용시장 변화 부응, 민간취업연계 용이한 신규사업 적극 발굴
- 기업수요 기반 교육, 비대면 직업체험 등 통해 참여자의 50% 이상 민간취업 연계

● 서울형 강소기업 발굴 및 지원을 통한 청년고용 확대 (550명)

- 청년이 일하기 좋은 기업을 대상으로 ‘서울형 강소기업’ 추가 발굴(100개사)
- 청년 정규직 채용시 지원하는 근무환경개선금 확대(최대 6명까지 9천만원/~'21.6)

●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신규 추진 (350명)

- 사회초년생 대상 직무교육(3~4개월) 및 인턴십(3개월) 통해 민간기업 정규직 취업 촉진
- 신산업 분야 유망 스타트업 및 글로벌 기업 등 협력 거버넌스 구축·운영
▶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스타트업포럼 등과 공동추진

기업 및 산업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인재양성 강화

● 신기술분야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서남권 기술특화캠퍼스 조성·운영

- SW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기술특화캠퍼스(2개소) 본격 운영 및 조성
▶ 영등포 기술특화캠퍼스('20.10월 개관, 운영 중), 금천 기술특화캠퍼스 조성 중
- 취업컨설팅, 취업코디네이터 운영 등 통해 수료생의 60% 이상 취·창업 연계

● 기술교육원의 기업·현장 수요 기반 맞춤형 직업훈련 강화

-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콘텐츠 제작 등 비대면 교육을 위한 인프라 확충 ('21.1월)
- 새로운 산업수요 및 분야에 맞는 교육과정 혁신 ('21.1월)
▶ 4개 교육원별 신기술 대표학과 육성(3D프린터제품디자인과, CAD기반패션디자인과, 신재생에너지학과, 스마트 전기학과), 기업협력형 과정 운영 등
- 기술교육원 효율성 제고 위한 운영방식 개선 ('21.3월)
▶ 객관적·합리적 인사시스템 마련, 예산집행 투명성 강화 등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존중특별시 구현

코로나19 사각지대 노동자의 권리보호 강화

- **전자상거래 노동자 권리보호 강화**
 - 공공주차장 등 유휴지 내 이동노동자(배달, 학습지 교사 등) 간이쉼터 설치('21. 3월~) ※ '21년도(10개소) → '22년도(25개소)
- **고용형태 특수성을 고려한 플랫폼노동자 전담 지원창구 개설**
 - 동북권·서남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내 설치, 노무·세무 상담 등 (2개소, '21.3월~)
- **배달전쟁에 내몰리는 배달대행업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추진**
 - 전문교육기관을 통하여 1,500명 대상 이론 및 실습 교육 (4시간, '21. 4월~5월)
- **플랫폼·특고노동자, 프리랜서 맞춤형 지원대책 수립 ('21.5월)**



〈 간이쉼터 설치(예) 〉

재난상황, 사회적 필수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 전문가 위원회 및 실무 TF 구성·운영으로 필수노동자 지원방안 마련('21.4월)
 -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위원회 및 5개 분야 10개 부서 실무 TF 구성
 - ※ 5개 분야 : 보건·의료, 돌봄, 교통·운송, 환경미화, 택배·배달
- **필수노동자 방역물품 지원 및 업무상 사고·질병 예방**
 - 플랫폼·특고 등 필수 및 취약노동자 방역물품(마스크 등) 지원
 -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확대와 감정노동자 심리상담 지원

신체건강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확대
입원 10일 검진 1일 + 외래3일

마음건강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
⇒ 스트레스, 심리상담 및 치유



- **근무지 휴업 등 고용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필수노동자를 위한 소액 융자지원(25억원)**
 - (대상확대) 특고·프리랜서(기존) + 보건·의료, 돌봄, 환경미화 등
 - (한도확대) 자금 실수요상황 반영 : 500만원 → 1,000만원

시민 접근성 강화와 사회적 공감대 확산

- **전자상거래 노동자종합지원센터 확충으로 현장밀착형 노동복지 강화**
 - '20년(22개구) ⇒ '21년(23개구) ⇒ '22년(25개구)
- **비대면 노동자 종합지원 플랫폼 '서울노동포털' 구축**
 - 노동권익센터,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등 관련 홈페이지 통합, 접근성 및 편의성 개선
- **서울형 노동안전보건우수기업 선정, 민간기업 노동환경 개선 유도**
 - '21년도 30개사 선정, 작업환경 개선자금(1,000만원), 경영컨설팅 등 지원

5 연결·융합·혁신을 통한 미래 스마트도시 생태계 선도

미래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

● S-Net 기반 통신기본권 전면 보장 및 도시데이터서비스 본격화

- 市 전역 공공 정보통신망 연계, 확대 구축으로 미래 스마트도시 인프라 확보(5,408km)
- 공공WiFi 확대 구축(6,890대), 까치온 핫플 조성, 공공WiFi 통합관리센터 구축

● 빅데이터 기반 행정활성화 추진

- 융합데이터 개발 활용 빅데이터 통합저장소 단계별 구축('20~'22년)
- 도시현상 상시 측정을 위한 市 전역 도시데이터 통합센서 설치확대(1,100개)

● 스마트 안전도시 서울 실현

- AI 보안관제플랫폼 구축, 전자파(EMP) 공격 대응 등 사이버 침해 선제 대응
- 개인정보 가명처리, 개인정보삭제서비스(e-클린) 등 개인정보보호 서비스 강화

● 스마트서비스 통합제공 표준모델 확산(S-Pole)

- 스마트폰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市, 전 자치구 확산), 솔루션 융합을 통한 서비스 확대

첨단기술 활용 스마트 혁신행정 선도

● 스마트워크 근무문화 혁신 및 생산성 제고

- 지능형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단순·반복 업무 자동화(RPA) 서비스 구축
- 원격근무시스템(SVPN) 포털연계 등 개선으로 스마트 근무전환 가속화

● 빅데이터와 통계 기반의 과학적 시정혁신 선도

- 데이터 거버넌스 혁신을 통한 통합관리 체계 강화(데이터표준화 등)
- 사회적거리두기 강화 대응 비대면 통계조사 전환 및 통계통합플랫폼 구축

●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시정 서비스 확대

- AI 및 데이터 융합 시정 예측정보서비스 구축으로 일하는 방식 혁신
- AI 기반 공공예약정보시스템 서비스 개시('21.2.), AI챗봇 서비스 확대(업무처리 지원)

시민과 함께 누리는 스마트도시 구현

● 3D 기반 Virtual Seoul 시스템 활용 확대

- 3차 서비스 시민공개('21.3), 관광명소 VR 서비스, 골목길 재생 파노라마뷰 등
- 서울형 위키맵피아 구축(시민 수집 골목길 DB), XR 공간지도 구축(AR·VR서비스)

● 디지털 격차해소로 스마트 포용도시 실현

- 민관 협력 스마트폰 보급사업 확대, PC·스마트패드 보급 등 포용적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 과기부 협력 디지털 배움터, 어디나지원단 및 로봇 활용 특화교육 확대

● 빅데이터 시민 서비스 확대

- 시민참여 민관융합데이터 제작, 빅데이터캠퍼스 확대 개방, 서울데이터서포터즈 운영

6 관광업 위기극복 및 미래 성장기반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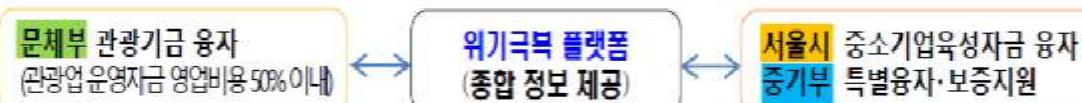
코로나 초기 극복을 위한 관광업계 긴급 지원

● 관광업계 긴급 생존자금 직접 지원(2차 「서울형 관광업 위기극복 프로젝트」)

- 서울 소재 관광업체(여행·MICE·호텔업) 1,500개 대상 업체*당 100만원 지원(총 15억원)
 - 정부 재난지원 제외 업체(5인 이상) 지원으로 사각지대 해소
- 업계의 골든타임에 맞춰 신속 집행·지원(3월)으로 관광업계 생존지수 제고

● 「위기극복 플랫폼」 구축으로 관광업계 종합 지원체계 마련(2월)

- 관광업계 대상 서울시·문체부·중기부 등에 산재된 긴급지원 정보 종합안내



● MICE종합지원센터를 관광·MICE기업지원센터로 확대, 업계 종합지원

- 노무·세무·법무 등 전문컨설팅(160건), 종사자 코로나 블루 심리상담(50건) 지원
 - 전문컨설팅(변호사 2명·노무사 2명·회계사 2명), 심리상담사(2명) 인력 배치하여 운영

고부가 의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서울관광기반 마련

● 서울의 우수한 의료관광 기반 외국인 환자 수용태세 구축 및 홍보강화

- 웰니스 분야로 의료관광 협력기관 확대(150개→200개)하여 의료관광 생태계 확장
- 서울관광플라자 내 '의료관광헬프데스크' 및 '의료관광 체험공간' 조성·운영(4월~)
 - 의료관광 국제트래블마트(300개사 참여) 개최 및 홍보 마케팅 통한 서울의료관광 인지도 제고

● 프리미엄 관광 발굴·육성으로 고품격 서울관광 이미지 제고

- 코로나19 시장회복을 위한 프리미엄 관광 주요 주체 간 네트워크 강화(3~4월)
- 기 발굴된 프리미엄 관광콘텐츠(20개) 및 신규콘텐츠 활용 홍보마케팅(5~10월)

● 한류를 활용한 서울강점 특화관광 콘텐츠 확대

- 해외 인기 한류콘텐츠 촬영지를 소개하는 한류테마 관광코스 발굴(4~12월)
- 서울 10대 한류명소 선정, 홍보영상 제작 및 참여형 이벤트 개최(9월)
- 도심 속 '힐링 여행' 코스 개발(8월), 공연·음악 등 활용 '감성 여행' 프로그램 발굴(9월)

■ 코로나19 이후 선호 여행지 선점을 위한 ‘안전서울’ 글로벌 마케팅

- 글로벌 한류스타 활용 전 세계 서울관광 온라인 홍보 강화(7월)
 - 한류스타 활용 ‘안전한 서울관광 홍보 영상’ 제작, 글로벌 주요매체(CNN·NY Times·BBC 등), SNS, 디지털 등 해외 광고 및 세계 지역별 차별화된 마케팅 실시
- 홍보 효과 극대화를 위한 타깃 시장별 차별화된 디지털 마케팅 추진
 - 언어·국가별 타깃을 설정,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관심사항 도출, 마케팅 추진
 - 외국인 인플루언서와 협업, 서울관광 체험·소개 영상 제작·홍보
- 차별화된 마케팅 및 캠페인 전략 수립을 통해 포스트코로나 관광수요 대응
 - 서울 관광브랜드를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관광슬로건 및 캠페인 테마 도출
 - 서울관광의 ‘안전성과 매력’을 부각, 서울관광 조기 회복 환경 조성

■ 서울관광 핵심허브 ‘서울관광플라자’ 개관(4월)

- 관광산업의 이노베이션 및 인큐베이터 기능 수행
 - 관광스타트업 육성 : 스타트업(67개) 공간지원, 맞춤형 엑셀러레이팅 등
 - 기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 : 관광·MICE 기업지원센터 운영
- 市, 관광재단, 협·단체 등 관광분야 집적화 및 상시 협의체계(공간 + 프로그램) 마련
 - 7개 협·단체 입주(서울관광협회 등) 및 「서울관광발전협의회」, 「클러스트협의체」 운영
- 서울관광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외래관광객 및 시민이 쉽게 찾는 관광거점 구현
 - 종합 관광정보 제공 및 관광 관련 체험·창작·참여 가능 시민관광 복합공간 마련

■ 서울관광 조기회복 견인을 위한 계기 마련

- 포스트코로나 「서울관광 국제학술대회」(‘글로벌 리부팅 관광, 서울로부터’) 개최(7월)
 - UNWTO ‘뉴노멀 관광 심포지엄’ 연계, ‘서울 리부팅 관광 선언’
 - 국내외 관광 관련 포스트코로나의 선제적 대응 전략 및 신규 관광정책 발굴
- 관광수요 회복 및 선제적 비즈니스 기회제공을 위한 국제관광산업박람회 개최(하반기)
 - 포스트코로나 시대 안전, 소규모 등 변화된 관광트렌드 반영한 프로그램 구성
 - 국내외 관광업계(1천개), 의료관광 협력기관이 함께 하는 B2B, B2C 세일즈
- 특별한 관광 이벤트 「SEOUL FESTA 2021」 개최로 신규 관광수요 창출(9월)
 - 서울 전역에서 전기자동차 경주대회(E-PRIX), K-Pop·쇼핑 등 축제 집중 개최

문화시설 확충과 역사문화유산' 발굴로 문화도시 구현

서울 곳곳 특색 있는 문화시설 조성 및 문화소외지역 인프라 확충

국내 최초 공예전문 '서울공예박물관' 개관 : '21.5월

- 한국 공예문화를 선도·발굴·전파하는 아시아 대표 공예문화 플랫폼
▶ 舊 풍문여고(종로구 울곡로), 전시관, 수장고, 교육·체험실 등
- ⇒ 지정문화재 13점, 국제상 수상 작품 등 21,750점 수집·전시



(서울공예박물관 조감도)

차질 없는 공정관리로 문화시설 확충 지속 추진

- 3·1 운동을 세계에 알린 앤버트 테일러의 원형 복원 가옥 「딜쿠샤」 ('21.3월)
- 예술인들이 직접 참여하여 만든 민관협치형 문화시설 「예술청」 ('21.6월)
- 한옥의 장점 살린 시민이 즐겨찾는 한식문화공간 「삼청각」 리모델링 ('21.7월)
-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개관 ('21.12월)
- 서남권 유일 공립 미술관 「서서울미술관」 ('24.1월), 국내 최초 공공 사진미술관 「서울사진미술관」 ('23.10월), 미래 역사 문화 지원 보존공간 「통합수장고」 ('23.12월) 등

지식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도서관 인프라 확충 및 도서관 서비스 질 제고

- 서울대표 도서관 및 권역별 전문특화 도서관 건립 ('22년~'26년)
- 서남권 지역 책문화 활성화를 위한 고척스카이돔 내 「제2책보고」 조성 ('22.4월)
- 자치구 도서관 건립(12개관, 13,034백만원), 운영비 및 사업비(547개소, 13,326백만원) 지원

「2천년 역사문화 도시, 서울」 육성

살아있는 역사문화유산을 활용한 시민 교육의 장 조성

- 의정부지 유구보호시설 건립 ('23.6월), 남산 한양도성 유적전시관 조성 ('20.11월), 풍납동토성박물관 조성 ('23.12월) 등을 통한 역사유산 명소화

역사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 자원화

- 궁궐과 한옥, 정동일대 등 도심에서 즐길 수 있는 역사문화 축제 활성화
▶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10월), 서울무형문화축제(10월), 정동야행(10월), 한양도성 문화제(10월) 개최
- 매달 해당 월과 관련된 '이달의 문화재', '이달의 미래유산' 선정·홍보
▶ 「보신각 타종」 1월의 미래유산, 「구 러시아공사관」 2월의 문화재 등

시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확산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속 가능한 문화생태계 조성

● 비대면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를 위한 인프라 구축

- DDP 화상 스튜디오 '서울-온' 조성·운영('21.4월)
- 남산창작센터 실감형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조성('22.6월)



〈화상 스튜디오〉

● 문화예술 프로그램 콘텐츠의 지속적인 개발·제공

- '문화로 토닥토닥' 지속 추진 통해 코로나 극복 시민응원 및 문화예술계 활성화
▶ 박물관, 고궁 등 문화명소 무대 온라인 공연 12회, 다양한 장르의 소규모 상설공연 1,500회 등
- 장소·시간 분산 및 거리두기에 기반한 '안전한 축제' 개최로 축제 생태계 복원
▶ 드럼페스티벌(5월), 국악축제(6월), 거리예술축제(10월), 서울뮤직페스티벌(10월) 등

● 코로나 피해 문화예술계 회복 지원

- 코로나로 침체된 문화예술계에 직·간접 일자리 2,872명 창출
▶ 예술분야 청년일자리 424명, 공연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2,060명, 예술교육강사 등 388명
- 안정적 창작환경 제공을 위한 전 장르 창작활동 지원(1,120건, 150억원)
▶ 예술 창작활동(600건, 109억),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20건, 20억), 기타(500건, 21억)

시민이 주체가 되는 '서울형 생활문화' 확산

● 지역특성을 반영한 '서울생활문화센터'(4개소) 운영으로 시민참여 확대

- 「낙원」의 악기 기증 확대 700점 → 1,000점, 「서교」의 청년 예술기획자 강좌 15회
- 「신도림」의 시민그림 전시 확대 200명 → 400명, 「체부」의 생활오케스트라 공연 확대 4회 → 12회

●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맞춤형 예술교육

- 저소득층 예술영재(250명), 발달장애 청소년(60명), 일반시민(56개 프로그램)
- 배송된 놀이키트 활용 예술놀이(1,000명), 온라인 예술놀이 콘텐츠 제공(10만명)

●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공디자인과 공공미술 확대 적용

- '서울 유니버설디자인 대상' 제정으로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 서울' 위상 제고
- 달빛노들 개장('21.2월), 서울대공원·문화비축기지에 시민참여 공공미술 설치 추진
- 25개 자치구와 함께하는 코로나19 공공미술 프로젝트 당선작 구현

안전하고 건강한 모두를 위한 체육활동 지원 강화

건강한 전문체육 생태계 조성

- 스포츠 인권보호 강화 및 뉴노멀시대 민간 주도 체육활성화 기반 마련
 - 성적 지상주의 문화개선 등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종합대책 지속 이행
 - 민간회장체제 서울시체육회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한 법인화 등 추진(상반기)
- 체육시설 신규 건립으로 국제적 수준의 체육인프라 확충
 - 서북권 복합체육시설(빙상장, 인라인 롤러경기장) 건립 타당성조사(7월) ※ 준공: '25년
 - 서울어울림체육센터 중앙투자심사(8월), 착공(10월) ※ 준공: '23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생활체육 활동 기반 마련

- 생활체육시설 지속 확충으로 여가스포츠 환경 개선('21년 72개소)
 - 지역거점형 11개소(다목체육센터 9개소, 우리동네 작은체육관 2개소)
 - 민·관·학 협력 57개소(학교체육시설 50개소·민간체육시설 1개소 개방, 실외체육시설 6개소)
 - 공공체육시설 무장애 환경 조성 4개소(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한 체육시설 개선)
- 일상 속에서 누구나 쉽게 즐기는 비대면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 '따로 또 같이' 비대면 마라톤 대회 개최(여성마라톤대회 5월, 서울달리기대회 10월)
 - 한·중·일 UNTACT 바둑대축제 개최(10월), 비대면 「서울걷길」 운영(자치구별 코스지정)
- 생활체육정보 제공을 위한「생활체육 종합정보시스템」오픈(3월)
 - 지도 기반 市 공공체육시설 통합검색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편의 제고
 - 시민 참여의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및 정보(생활체육상식 등) 제공

국제 스포츠 도시로서 경쟁력 강화

- 「2032 하계 올림픽」 서울-평양 공동유치 기반 마련
 - 市 공식 올림픽 유치준비 조직으로 「유치준비자문단」(50여 명) 구성·운영
 - 유치공조 위해 범정부 「유치추진협의회」 정례 운영(문체부, 통일부, 외교부 등 참여)
- IOC 지속협의 대응 및 올림픽 유치 공감대 확산
 - IOC 미래유치위원회와 수시 비디오 컨퍼런스(3월~) 및 대표단 현지 브리핑 추진
 - 서울시 장기 비전에 입각한 올림픽 유치 신청자료 작성(6개 분야, 93개 항목)
 - 도쿄올림픽 서울시 홍보관 운영(7월),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 총회 개최(10월)
- 위로와 화합의 전국생활체육대축전(11.4~11.7) 차질 없이 준비
 - 코로나 위기 극복에 기여한 의료진과 희생을 감수한 시민들에게 참여·화합의 장 마련
 - 58개 경기장 조기 확보, 철저한 방역 및 시설물 점검으로 '안전 대축전' 개최



3. 쾌적하고 편리한 안전 서울

① 예방과 선제적 대응 중심의 안전도시 구현

② 쾌적하고 안전한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③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서울 교통체계 구축

④ 사람 중심의 안전한 보행친화도시 본격화

⑤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관리 및 온실가스 감축 강화

⑥ 쾌적하고 청결한 자원순환 도시 조성

⑦ 한강 자연성 회복 및 수돗물 신뢰도 제고

1 예방과 선제적 대응 중심의 안전도시 구현

365일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안전 확보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 대응 체계 확립

● 재난현장 속 신속대응을 위한『재난 대비 협업훈련 강화』

- 시·자치구 분산된 훈련을 협업 가능한 체계로 전환(시·자치구·소방 연계 훈련)
- 시기별로 빈도가 높고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재난 중심 유관기관 협력

시기별	봄 (2월 ~ 4월)	여름 (5월 ~ 8월)	가을 (9월 ~ 11월)	겨울 (12월 ~ 2월)
취약재난	붕괴(해빙기)	풍수해, 폭염	화재	대설, 한파
협력 대응	시기별로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유관부서와 정례협의회 구성, 비상시 신속 대응 논의			
	안전총괄실 + 소방본부 +주택본부 + 도기본 + 푸도국			
	안전총괄실 물순환안전국 + 복지실			
	소방본부 + 안전총괄실 푸도국 + 노동민생정책관			
	안전총괄실 + 도시교통실 + 복지실			

● 재난대응 황금시간 달성을 위한 소방장비 성능개선 및 인프라 고도화

-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일제조사(368개소) 및 교통신호제어기 확대설치(강서)
- 고층건물 대응 「68m급 고가사다리차」, 골목길 대응 「18m급 사다리펌프차」 배치
- 금천소방서 신설(9월), 다목적 인명구조훈련장 확대(2개소), 노후 소방헬기 교체(~'24년)

● 사고 및 재난현장 통합지휘체계 확립

- 재난현장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및 「스마트 통제단 시스템」운영 확대(1월)
- 최근 출동사례 분석, 화재위험지수 개발 및 상황판단지원시스템 운영(하반기)
-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확대(고급과정) 및 화재조사관 등급제 운영(6월)

안전취약계층 보호 등 안전 사각지대 해소

● 폭염·한파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취약계층 보호

- 한파·폭염 종합지원상황실 운영, 시·구 T/F운영으로 24시간 상황 관리
- 한파·폭염 저감시설 운영, 온열·냉방 용품지원 등 재난취약계층 보호

● 화재취약대상 초기진화장치 보급 확대

- 「보이는 소화기」 확대 설치 및 자동 화재진화 간이스프링클러(S/P) 설치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28,500세대)

● 시기별·이슈별 재난 취약 분야 안전점검 및 지원

- 15년 이상 민간 건축물 실태점검, 「3종 시설물」 지정·관리(25,915동 중 177동 지정고시)
- 안전취약시설 보수 지원(32개소 2,000백만원) 및 도로시설물 354개소 점검 및 보수·보강

재난 대비 도시기반시설 구축 · 관리

미래 · 복합재난 대비 인프라 구축

● 재난관리자원 통합비축센터(방역물품기지) 건립

- 재난발생시 초기대응 및 방역·구호물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방역물품기지 건립
- 부서별로 운영중인 창고를 통합하여 보관·관리·운송을 체계적으로 통합관리

관리부서	관리물품	면적	위치
시민건강국	예방의약품	600㎡	
복지정책실	재해구호물자	600㎡	성동구 용답동 (市직영)
재무국	자재(방역물품)	600㎡	
안전총괄실	방역물품	2,300㎡	파주시(민간임대)

**재난관리자원
통합비축센터**

● 지진발생 대비 공공시설물 내진확보 등 「지진에 강한 서울만들기」

- 市 공공시설물 52개소 내진보강실시 ('21년 내진율 96.6% 목표→'22년 100% 확보 추진)
- 지진대비 훈련시나리오개발(지진안전센터), 서울시 지진방재종합계획 추진
- 지진체험시설 확대설치(5개소) 및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인프라 관리

● 기반시설물 노후화에 대비 선제적·과학적 관리 시스템 구축

- '최소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기준' 고시('21.2.) → 주요 기반시설 7종 B등급 관리
- 기반시설 통합 DB 구축 및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운영 등 스마트 관리
- 빅데이터·3D·미래기술(영상로봇, IoT, AI 등)을 활용한 스마트 관리방식 도입

● 초고층 복합건축물·도로시설물(터널, 공동구 등) 재난관리 강화

- (초고층) 재난관리주체 협력체계 구축, 관리주체 컨설팅 추진 및 합동훈련실시



- (지하안전) 지하개발사업 현장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실시, 市지하안전 전담부서 신설
-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 수립('21.12), 조례 제정('22. 6)
- (공동구) 노후 방재시설(소방·환기·전기) 정비 기본계획 수립('21. 2)

● 첨단기술 도입 기반시설 스마트 유지관리

- (PSC교량) 음향센서 등 활용, 유판점검이 어려운 교량 내부긴장재 관리(12개소)
- (포트홀) 지능형운전자보조시스템 활용, 포트홀 실시간 검출(버스 1천7백대 장착)
- (터널) 3Mix(레이더, 영상, 음향) 기반 사고감지 및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신기술 활용 건설노동자 안전관리 및 권리 보호 강화

● 건설근로자 안전관리 강화

- 위험알림시스템 도입 : 건설장비, 작업장 및 개구부 등 위험지역 접근시 경보음 울림
- 스마트 안전장비(근로자 건강 및 위치파악) 시스템 구축('20) 및 시범운영('21)



● 건설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근로환경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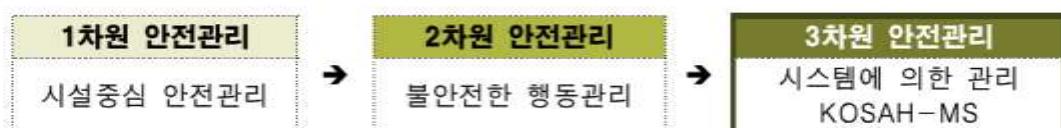
- 주휴수당 지급, 사회보험료 지원(조례개정 추진) 등 고용개선비 지원 확대
- 편의시설 설치 관련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 추진 등 편의시설(화장실, 탈의실) 확충

안전점검 및 맞춤형 교육을 통한 빈틈없는 안전관리

● 전문가와 시공현장 합동점검을 통한 빈틈없는 안전관리

- 공사장 분야별(구조·토질 등) 외부 전문가와 합동 현장점검(월1~2회 이상)
- 사고발생 위험성이 큰 공종에 대하여 사전작업 허가제 실시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AH-MS)* 시스템에 의한 안전관리

*공사계획 단계부터 준공까지 매뉴얼에 따라 점검·개선 등 시스템에 의한 관리시스템



● 시기별 공사장 안전관리 특별점검 실시

- 해빙기, 풍수해, 동절기 등 시기별 공사장 취약부분 특별 점검 실시
※ 축대, 응벽, 배수로, 흙막이 가시설 등의 침하·균열 여부, 크레인전도 등 중점 점검

● 노동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교육 실시

- TBM(작업개시전 미팅) 회의시 안전교육 및 「방역 교육 의무」 실시
- 사고상황을 체험하는 VR(가상현실) 콘텐츠 30종을 제작·활용하여 안전교육 실시
-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외국어 영상 활용 안전교육 실시(반기별)

2 괘적하고 안전한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물순환 회복 추진



※ 『물순환 회복 기본계획』을 통한 서울시 新물관리 정책방향 및 사업추진계획 확정(~21.6월)

● 강화된 빗물관리정책 추진으로 도시 불투수면적 지속 저감

- 세분화된 지역맞춤형 관리기법 도입, 불투수율 정도에 따라 우선관리대상 선정·집중 관리
- 법령 및 제도개선을 통한 저영향개발제도(LID) 강화, 실효성 확보

● 수자원의 친환경적 순환이용을 위한 증수도 확대, 하천친수용수로 활용

-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한 제도 정비·보완, 공공주도 시책사업 선도적으로 적용 추진
- 변기 등 한정적 사용실태를 개선 → 하천인근 개발시 하천친수용수로 활용 검토

● 하수처리수 재이용 확대를 위한 시설개선 및 신수요처 발굴

- 열병합발전소 냉각수(서남), 하수열 이용 난방(탄천), 농업공화국, 서울식물원 등

● 유출지하수 활용 극대화로 하수배출 최소화 → 물재생센터 부담 경감

- 지하수 보전관리 체계 마련, 유출지하수 활용 다변화 및 이용률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선진 시설물 관리기법으로 효율적 하수관로 정비·관리

● “소규모 지역단위 하수관로 정비”로 사업효과 극대화

- 사업시행단위를 배수분구에서 배출토구를 기준한 “소구역”으로 전환
 - 사업기간 단축(개소당 7년→3년), 시급지역 우선 정비, 시공품질 향상
- 소구역 단위 관로정비 본격화 : '21년 12개 지역('30년까지 85개소 완료)



● 3차원 정밀조사(Lidar)를 통한 하수관로 안전관리 강화

- 사각형거 1,130km('23년 완료), 맨홀 11.6만 개소('20~'25년) 대상
- 레이저스캐닝+영상촬영으로 관로 위치, 형상, 손상단면/미세변위 등 조사

■ 물산업을 서울의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

● 물재생센터 중심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 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지하화)와 연계하여 상부에 기반 조성('28년)
- 센터별 공간 특성 및 주변 여건에 따른 클러스터 이원화·유기적 연계
 - ▶ (중랑) 스타트업·연구소·대학 중심의 R&D 특화 종합 물산업 클러스터
 - ▶ (서남) 기업활동 중심 + 물 관련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 ⇒ 중랑에서 육성된 스타트업을 서남으로 이주하여 마곡산업지구와 연계하여 스케일업

● 물산업 육성·성장을 위한 정착 기반 마련

- R&D 및 실증화 지원 사업 과제 공모('21.5.)
 - ▶ 공모대상 : 물재생센터 수질개선 및 운영비 절감에 기여가 예상되는 연구과제
- 강소기업·대학·공공기관 등과 연계 물산업·물기술 공동발굴 및 육성 협업
 - ▶ 공공기관 기술 협력, 수처리 시설 실습 공간 제공, 강소기업 등 연계 인재 채용의 장 마련
- 스타트업·강소기업 R&D 지원 입주시설 및 연구소 설치
 - ▶ 물산업 혁신기술 공모사업 등 물산업 육성과제 및 실증화 사업 공동 연구

■ 시민이 든든한 재해없는 안전도시 조성

● 국지성 돌발 집중호우 대비한 안전대책 강화

- 호우특보, 소형레이더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역별 대응체계 강화
- 인명피해 제로화를 위해 호우특보 시 하천 전면 통제 및 순찰단 가동
- 도로침수 신속 대응을 위해 실시간 2중 모니터링(서울시+관리기관) 및 재난문자 발송

● 침수취약지역 해소 추진 및 지역특성에 적합한 방재성능 확보 지속 추진

- 침수취약지역 : 34개소 중 29개소 완료, 5개소 추진 중
 - ▶ 하수관로 정비(길동), 사당천 단면확장(사당), 유역분리터널공사(강남), 사천펌프장 신설(망원)
- 지속적인 수해방지시설 확충 및 정비
 - ▶ 빗물펌프장 : 증설 1개소(흑석) / 노후시설 정비(펌프, 수문 등) 57개소
 - ▶ 빗물저류조 : 신설 2개소(신림공영차고지 등 43.5만톤)
 - ▶ 하천 : 확장 1개소(안골천), 통수능 부족교량 재설치 3개소(쌍한교, 안양교, 태봉교)
 - ▶ 하수관로 : 신설 및 정비 22개소 10.2km
 - ▶ 기타 : 하천준설 60천톤, 하수관로 청소 3,334km, 빗물받이 청소 107만개

3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서울 교통체계 구축

■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대비 대중교통 방역체계 구축

● 감염확산 예방을 위한 대중교통 혼잡도 관리방안 시행

- (지하철) 실시간 혼잡도 및 혼잡구간 정보제공으로 이용객 분산유도('21.5월~)
 - ▶ 또타(서울교통공사앱) 및 T-map(대중교통) 앱 실시간 혼잡정보·혼잡구간 제공
- (버스) BIT 혼잡도 정보 실시간 제공을 통해 승객에게 탑승 여부 결정권 제공

● 운전인력 집단감염 시 정상 운행을 위한 전자동 운전시스템 시범사업 추진

- (지하철) 국토부와 협업으로 3호선 시범사업('21.1~12) 실시
- (버스) 자율주행 무인버스, 수요응답형(On-Demand) 버스 도입

● 대중교통을 통한 감염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예방시스템 구축

- 위치정보, QR코드 등을 통한 대중교통 탑승승객 정보확인 시스템 구축
- 감염위험도 감소를 위한 언택트 결제시스템으로 전환

■ 철도 대중교통 간선망 확대

●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본격 추진

- 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20.11월)으로 10개 노선 구축을 위한 토대 마련 및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절차 추진
- 후속절차는 지역균형발전 효과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 사업추진 확정 순으로 추진

노선 신설(6개)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큰 노선(강북횡단, 목동, 면목, 난곡, 우이신설연장, 서부)

연계 강화(2개) 네트워크 연계·효율성 제고 노선(서부선 남부연장, 신림선 북부연장)

기존선 개량(2개) 신규·기존 이용자 편의 제고 노선(4호선 급행, 5호선 직결)

● 서울-수도권간 광역교통망 철도 중심 재편

- 권역별 광역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광역철도 추진
- GTX 정거장 추가를 통한 도시철도 연계 및 환승체계 강화
- 서울도시철도 연장형 광역철도 사업 추진 원칙 수립
 - ▶ 연장시 “평면 환승” 원칙, 안전·효율성 담보시 조건부로 “직결 연장” 검토

■ 도시철도 재정건전성 제고 및 안전 강화

● 무임손실·노후시설 재투자비용 국비 보전 등 재무개선 기반 조성

- 법정무임승차, 노후시설 개량 등 대규모 예산소요 사업 정부 지원 법제화 추진
- 지방공사채 발행 기준 완화를 통한 외부 자금 조달 여력 확보(행안부 개정건의)

● 운영기관 재정운영 체질 개선 및 지속가능한 운영기반 마련

- 운영기관 사업다각화 등 자구노력 및 서울시 유동성 지원 병행
- 신규 광고사업 발굴, 역사 내 유휴 공간 활용 등 수익다각화를 위한 신사업 추진 확대

● 지하철 안전강화로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하는 환경 조성

-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하철 공기질 개선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역 사 — | 스마트 공기질 관리시스템 도입, 고성능 공기청정기 설치, 역사 환기설비 시스템 개량 등

전 동 차 — | 전동차 공기질 개선장치 확대 도입, 전동차 객실내 에어커튼 시범 제작 설치 등

터 널 — | 터널 양방향 전기 집진기 설치, 본선 터널 노후 환기시설 개량 설치 등

- 내구 연한 도래 노후전동차 및 시설 적기교체로 운행 안전성 확보

■ 시내버스 경영합리화 및 시민 편의 증진

● 시내버스 운송원가 합리화 및 버스업계 경영 행태 개선

- 원가절감 상위업체 기준으로 운송원가를 재산정하여 재정지원 합리성 제고
- 중대 비리·사고(불법채용, 횡령 등) 발생회사 재정지원 대상에서 퇴출

● 시민편의와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버스 서비스 수준 향상

- 코로나 19로 인한 이동특성 변화를 반영한 노선개편 및 운행수준 합리화
- 정비직·관리직 처우개선 및 식단 등 개선 추진

● 신규 재원발굴을 통한 수익창출로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

- 신규 광고 사업 발굴 등 수익다각화를 통한 수익 창출
- 원가 절감요소 창출 및 타이어 공동구매 지속 시행 등 비용절감 확대

4 사람 중심의 안전한 보행친화도시 본격화

■ 세종대로 사람숲길 등 걷고 싶은 보행공간 확대

● 세종대로 사람숲길, 시민과 함께하는 ‘명품 가로숲길’로 완성

- 토목공사 완료('20.12월), 수목식재·조경공사 완료 및 전면개방('21. 4월)
- 가로녹지대 88개소(6,210㎡) 조성, 편의시설 및 조경시설 설치('21. 3월)
 - ▶ 교목(19종 445주), 관목(9종 18,630주), 초화류(14종 130,440본) 식재
- 다양한 역사·문화행사 개최, 북창동 노천카페 운영 등 지역 활성화 모델 구현



● 서울 도심 도로공간재편 종합계획 추진 등 보행공간 획기적 확대

- '25년까지 총22개 도로(28.6km)를 보행이 편한 교통환경으로 단계적 전환
 - ▶ ('21년) 충무로, 창경궁로 → ('22년) 소공로, 장충단로
- 도심외 여의도·강남 등 지역특성, 교통여건 등을 검토 후 순차적 추진
 - ※ 기 완료(3개소) : 퇴계로(1·2단계), 새문안로, 종로

● 자치구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적’ 개선을 통한 보행 활성화

- 도심 외 도로 보행공간 및 녹색교통수단 확대 위한 보행환경 개선('21년 24개소)
- 보도 확장, 차량 진출입 억제,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보행편의시설 정비 등

■ CRT 간선도로망 구축을 통한 자전거 핵심 인프라 확보

● 청계천로 도심순환형 자전거 간선도로망 완성

- 청계광장~고산자교 5.94km 보도높이형 자전거도로 개통('21. 4월)
- 특화 디자인 도입으로 기능화 특성에 맞는 서울형 CRT모델 정립



● 도심권 남북측 한강대로 자전거 간선망 구축

- 세종대로부터 연계되는 서울역~삼각지 1단계 구간 우선 추진
- 공사기간 교통체증, 시민 불편해소를 위해 교통소통대책 단계별 순차 추진

● 기존 한강 간선망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량 등 자전거도로 구축

- 교량 내 차로다이어트를 통한 자전거도로 설치
- 청계천·정릉천 연결교량 신설 등을 통한 단절구간 연결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한 보행환경 선도적 조성

●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 추진으로 사망 제로, 중상자 50% 감축 추진

- 초등학교(606개교) 과속단속카메라 100% 완료('21.4월) ※ 정부목표 : '22년
- 스마트 횡단보도·옐로카펫 등 안전시설 설치로 횡단보도 주변 사고 집중개선
- '20년 35개소, '21년도 37개소 등 매년 30개소 이상 '스쿨존 532' 시행
▶ 제한속도 간선도로 50km/h, 이면도로 30km/h, 골목길 20km/h 이하

● 노인·장애인 사고 감축을 위해 사고다발지역 지정확대 및 정비추진

- 보호구역 외 공원, 지역상권 등 노인 사고다발지역 개선 추진('21년 7개소)
- 점자블록 및 보도 턱낮춤 1,500개소 정비, 장애인단체 요구지역 중점정비

● 대각선 횡단보도 확대로 보행자 횡단시간 단축 및 횡단보도 교통사고 예방

- 간선도로, 쇼핑 및 관광수요가 많은 지점,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등
▶ ('20년) 종로구청, 조계사 입구 등 25개소 → ('21년) 테헤란로 등 26개소

보행문화 활성화를 위한 보행권 인식 확산

● PM 등으로부터 보행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 및 협업강화

- 자치구, 민간업체, 경찰, 시민단체가 함께 하는 「통합적 캠페인」 실시
- PM·자전거·이륜차 준법 안전운행, 시·경찰 합동 현장 계도·단속('21.3월)
- 「Walk21 서울 국제 보행컨퍼런스」 개최를 통한 보행도시 패러다임 확산('21.5월)

● 보행권 확보 및 신교통수단과 상생을 위한 법·제도 정비

- 주차허용구간으로 설정한 곳 외의 지역은 주차금지로 보도상 무단방치 해소
- 관리규정이 없는 대여PM사업을 등록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자 책임성 강화
▶ 지역구역 주차제(도크방식), 사업자 이용료 부과 방안, 보험가입 의무화 등
- 도로교통법 상 PM 운행의 속도기준($25\text{km}/\text{h} \rightarrow 20\text{km}/\text{h}$) 하향 추진

● 서울 전역 차 없는 거리 확대

- 도심 대표 나들이 코스 덕수궁길, 1년 365일 차 없는 거리로 운영('21.4월~)
- 지역맞춤 특화거리와 연계, 서울 전역으로 차 없는 거리 확대
▶ 서대문(연세로), 종로구(돈화문로), 영등포구(영중로), 강남구(가로수길) 등 9개소

5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관리 및 온실가스 감축 강화

■ 시민 건강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관리

● 고농도 시기(12~3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수송, 난방, 사업장, 노출저감 등 4대 분야 13개 저감대책 추진
※ ('19.12.~'20.1.) $29\mu\text{g}/\text{m}^3$ → ('20.12.~'21.1.) $24\mu\text{g}/\text{m}^3$ 로 초미세먼지 농도 감소
- 계절관리제 정책효과 분석(서울연구원) 등 3차년도 시행방안 마련(하반기)

●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및 노후 운행차 저공해사업 추진

- 계절관리제(12~3월) 및 수도권 LEZ(4~11월) 저공해조치 미이행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21년까지 잔여 5등급차량 저공해조치 완료 : 2만대(조기폐차 1만, 저감장치 부착 1만)

● 배출원 집중 관리 및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위한 과학적 분석기반 강화

- 친환경보일러 보급, 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등 배출원 관리 강화
- 이동형 측정시스템인 모바일랩 운영으로 지역별 미세먼지 원인 상세 분석

●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 협력 강화

- ‘대기질 개선 서울 국제포럼’ 개최, 국내·외 도시 등의 우수정책·기술 공유(10월)
- ‘동아시아 맑은공기 도시네트워크’ 출범, 대기질 관련 공동과제 선정 및 논의

■ 그린뉴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으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

●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큰 건물부문에서 공공이 감축 선도

- 노후 공공건물 ZEB 전환(30개소), 보건소·어린이집 등 그린리모델링 지원(126개소)
- 온실가스 총량제 로드맵 마련 및 市 건물 51개소(연면적 1천 m^2 이상) 대상 시범사업 추진

● 전기차·수소차 보급 확대 및 이용시민 총전편의성 제고

- 화물·택시·승용·이륜 등 전기차 보급(11,779대) 및 충전기 280기 구축
- 시청내 수소충전소 건립 등 인프라 확충('21년 6기), 충전 능력 고려한 수소차 보급(880대)

● 태양광 미니발전소 및 공공부지 활용 태양광 보급 확대

- 미니발전소 6만가구 등 민간시설 및 공공부지 95MW 보급 추진
- 신기술 실증단지 조성('21.4.), 국내 혁신기업 테스트베드 제공



〈서울에너지공사 컬러BIPV〉

● 기후위기 대응 공간관리 전략 및 도시계획기법 적용 추진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기후변화를 고려한 공간 관리전략 및 실현방안 제시
- 기후변화 대응 도시계획기법 목록화 및 개별 도시관리계획에 적용 추진

6 괘적하고 청결한 자원순환 도시 조성

폐기물처리기반 강화로 ‘자원순환도시, 서울’ 조성

- 생활폐기물 발생지 책임 처리 원칙에 따라 친환경 처리시설 확충 추진
 -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여 광역자원회수시설(1,000톤/일) 신규 건립 추진
 - 자원회수시설 내 폐비닐 선별시설(230톤/일) 설치로 처리용량 증설효과 기대
 - 수도권대체매립지 3자(서울·환경부·경기) 공모 추진('21.1.14~4.14. 90일간)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지속적 확충 및 원천감량 추진
 - 강동 대체건립(음식물 360톤/일, 음폐수 270톤/일), 난지 기본계획 용역
 - RFID종량기, 감량기 보급확대, 시민교육·홍보 온오프라인 확대



〈강동자원순환센터 조감도〉

폐자원 재활용 활성화로 지역 내 자원순환 체계 구축

- 재활용 선별시설 확충 및 처리 효율 개선
 - 공공 재활용선별시설 처리용량 193톤/일 증설('21년 1,024톤/일, 공공처리율 76%)
 - 재활용품 선별 효율 제고를 위한 표준 장비, 선별 공정 등 운영지침 마련·보급
- 지역 내 발생 폐자원 재활용 활성화
 - 하수오니, 소각재 등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고형연료 등으로 재활용 확대
 - 투명 폐페트병 재생원사를 활용한 의류, 가방 등 친환경제품 개발 지원
- 건설페기물 재활용 확대 및 공공관리 강화
 - 시·군·구 발주 공사장에서 골재 소요량의 40% 이상 순환골재 의무사용('21.1~)
 -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지정 등 공공관리 체계 구축

괘적하고 청결한 서울 가꾸기

- 생활폐기물 청소 서비스 체계 및 공무관 근무환경 개선
 - 수집·운반 대행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마련 등 생활폐기물 청소 서비스 체계 표준화
 - 공무관(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 지원 확대 등 근무환경 개선
- 빈틈없는 청소체계 구축 및 도로청소 강화로 도시 청결도 향상
 - 청소 취약시간대 ‘서울 365 청결기동대’ 운영 및 자치구별 도시청결도 평가
 - 계절관리제 기간 중점관리도로(53개 구간) 청소강화 및 친환경(CNG) 도로청소차 보급

7 한강 자연성 회복 및 수돗물 신뢰도 제고

■ 자연형 호안 복원 및 생태 완충지대 조성

● 자연형 호안 조성으로 한강 수변 생태계 회복

- 콘크리트 호안을 걷어내고, 자연소재인 돌과 자갈을 쌓은 자연형 호안 복원
- 전 구간을 자연형 호안으로 복원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쉼터로 조성

● 동식물 다양성 증진, 생태 완충지대 조성, 자연하천 계절감 회복

- 자연 소재, 식물 매트 설치를 통한 서식 공간 확충으로 생물 다양성 증진
- 자연과 사람을 연결하는 하천 수변 생태완충지대 조성

■ 울창한 한강숲 조성

● 한강변 울창한 숲 조성을 통한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 및 도시환경 개선

- 한강 수변 생태복원을 위한 생태숲, 한강둔치 쾌적한 녹음 제공 이용숲, 강변 도로 소음과 매연 차단을 위한 수림대인 완충숲 조성
- 민간기업·시민단체 등 기부를 통한 시민참여 한강숲 조성



(힐링숲(뚝섬))

● 한강공원 침수피해 대응을 위한 수목 식재

- 침수 사례, 침수 수위 고저차를 고려해 식재 여부, 수종 선정
- 교목 위주로 식재하고, 관목은 경관용, 피복용 등으로 식재

■ 도심 속 생태명소 <여의샛강 생태공원> 재단장

● 여의샛강 생태탐방·체험공간 및 완충녹지 조성

- 여의샛강 방문자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생태 체험공간으로 조성
-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주변 수목 식재를 통한 여의샛강 완충녹지 조성

● 여의샛강 생태공원 내 식생수로 조성 등 하천환경 개선

■ 자연친화적 한강 조성을 위한 청소개선대책 지속추진

● 한강의 자연성 회복 및 지속 가능한 공간 보전을 위한 청소개선대책 지속 추진

- 공원 내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규격봉투 실명제 및 쓰레기 분리 배출 강화
- 그늘막텐트 허용구역 지정·운영 및 시민단체 연계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및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

● 깨끗하게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

- 정수센터 순환 재건설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확장(정수센터 정비방안 용역 추진 : '21.1~11)
- 유충 발생 대비 사전대응 체계 구축 및 시설물 관리 강화(자체 종분석 시스템 구축 등)
- 장기사용 상수도관 모니터링 및 정비('24년까지 455km 우선 정비 - '21년 42km 정비 목표)

● 상수원에서 수도꼭지까지 선제적 수질관리

- (상수원) 상수원 및 원수 수질관리 21지점(상수원 16지점, 취수원 5지점)
- (신종물질) 수질오염 대비 미규제 신종 미량물질 모니터링 강화('20년 160 → '21년 165항목)
- (정수) 세계보건기구(WHO) 수준(166항목) 이상 정수 수질검사(171항목)
- (수도꼭지) 수도꼭지 수돗물 소독상태 최적 관리(잔류염소 농도 0.1~0.3mg/L 유지)



※ 아리수 생산·공급 전 과정에 식품안전관리 기법 ISO 22000 도입('17년~)

먹는 물로서의 아리수 위상 강화

● 수질관리를 통한 수돗물 시민 신뢰도 제고

- 주택 내 낡은 수도관 교체 지원('21년 1만 9천 가구)
- 대형 상수도관 관세척 기본계획 수립
 - ▶ 400mm 이상 대형관 1,634km 중 40km 우선 추진
- 소블록 단위(407개) 상수도관 물세척으로 각 가정까지 깨끗한 아리수 공급

● 첨단기술 활용 상수도 운영

- 데이터기반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디지털 「Seoul Water 스마트 상황실」 구축
- 검침 불편·위험 수전 조기 원격검침 전환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업무 경감(53,500개소)
- AI 기술을 도입하여 24시간 민원 대응체계 구축, 시민불편 해소 및 상담직원 부담 완화
 - ▶ 상담 챗봇, 상담 비서봇 개발 및 고도화('20~'22), 음성상담 콜봇 구축('23)



4.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 서울

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지원 확대

② 시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 실행력 제고

③ 지역별 특화 및 균형 발전 기반 강화

④ 자연이 살아 숨쉬는 숲과 정원의 도시 서울 조성

⑤ 지방과 서울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상생

1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지원 확대

■ 공적임대주택 24만호, 추가 8만호 지속 공급

●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24만호 지속 공급

- 5년간('18~'22년) 공공임대주택 12만호, 공적임대주택 12만호 공급
- 단계별 철저한 공정관리, 제도개선 등 차질 없이 추진

● 주민의 삶을 고려하고 지역발전과 함께하는 추가 8만호 공급

-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을 바탕으로 공공주택 8만호 추가 공급
- 관련기관 협업 등 체계적·지속적 사업관리, 절차 간소화 및 소통강화를 통해 사업 활성화 추진



〈북부간선도로 입체화〉

※ '20년 목표 63,813호 대비 170%(107,513호) 달성('20.12.)

■ 공공성 강화, 정부 협업 추진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 공공정비사업(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제도 마련 및 시범사업 추진

- (공통) 제도 실행을 위한 법령 및 조례개정 등 제도적 기반 조성('21. 하반기)
-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지 선정하여 성과 가시화('21. 상반기)
- (공공재건축) 시민체감도 제고를 위한 선도사업지 발굴('21. 9. 예정)

●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정부협력 추진(2.4대책)

-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공공이 직접 사업 추진
- 절차 간소화 및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 확대 및 공공성 확보
- 신규 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기본계획 재정비 및 정부와 협력체계 구축

■ 청년·신혼부부의 공정한 주거출발선 지원

● 원하는 장소에 거주하도록 신혼부부 입차보증금 지원 지속 추진

- 신청가구 대상 수요관리, 관계기관(은행 등) 협력체계 강화('21년 10,500명)
- 맞춤형 주거서비스 제공, 원스톱 온라인 플랫폼 '서울주거포털' 지속 운영

● 다양한 청년 주거지원 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환경 지원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활성화 및 입주자 생활편의 증대
- 청년 독립을 위한 청년월세(월 20만원) 지원('21년 5,000명)
- 청년 임차보증금 지속 지원, 높은 주거비 부담 완화('21년 3,300명)



〈서교동 역세권청년주택〉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건축물 관리 강화

● 불법건축물 예방 및 정비를 위한 체계적 유지관리 지도·점검 추진

- 불법 방조개기, 무단용도변경, 무단증축, 발코니 불법 확장 점검(분기별 점검)
- 위법행위 엄단조치(시정명령&고발(확행)→이행강제금 부과→미납시 압류→체납시 공매)

●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및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10대 안전대책(안전관리 정보화시스템 구축 등) 실행
-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지원, 건축안전센터 운영 내실화 등 안전체계 구축

■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

● 「찾아가는 아파트관리 주치의」운영을 통한 관리지원 강화

- 적발·처벌에서 지원·자문 중심으로 관리 패러다임 전환
- 서울시 아파트 관리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통해 아파트 문제해결 지원

● ‘S-APT 플랫폼’ 전면도입, 아파트 관리 투명성 확보

- 300세대 이상 2,223단지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 전면 시행('21.1)
- 시스템 교육 및 홍보 강화, 아파트 관리업무 전자결재 표준체계 확립 및 전파

■ 정비사업의 전문화·선진화 추진

●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를 위한 e-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20.5~'21.5)

- 클린업시스템, e-조합시스템을 통합·일원화한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 정보공개, 결재, 분담금, 용자 등을 All-In-One, 투명한 조합운영 유도

e-조합 공개 기능	e-조합 결재 기능	분담금 추정	정비사업/공공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공개◆ 알림마당/정보센터◆ 조합안내, 사업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관리, 회계관리◆ 문서작성 및 접수◆ 전자 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정 사업비 및 개략적 분담금◆ 확정된 사업비 목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융자금 신청/조회◆ 정비사업아카데미◆ 정비업체 정보

● 강제철거 예방 등 사회적 약자 인권·주거권 보호

- 사전협의체 운영 내실화로 협의에 의한 자진이주 유도
-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령(민사집행법, 도정법 등) 개정 추진
-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 지속 추진

2 시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 실행력 제고

서울시 도시재생 패러다임의 전환

시민요구가 반영된 서울시 도시재생 미래방향 정립

● 서울시 도시재생 10년에 대한 성과와 보완 발전

- 기 추진 재생사업에 대한 평가, 모니터링 용역을 통한 성과·한계 도출(~3월)
- 지역주민 및 일반시민 대상 사업효과 및 시민체감 설문조사(~3월)

● 전문가, 시의회 등 거버넌스 협의체를 통한 재생사업 新정책 종합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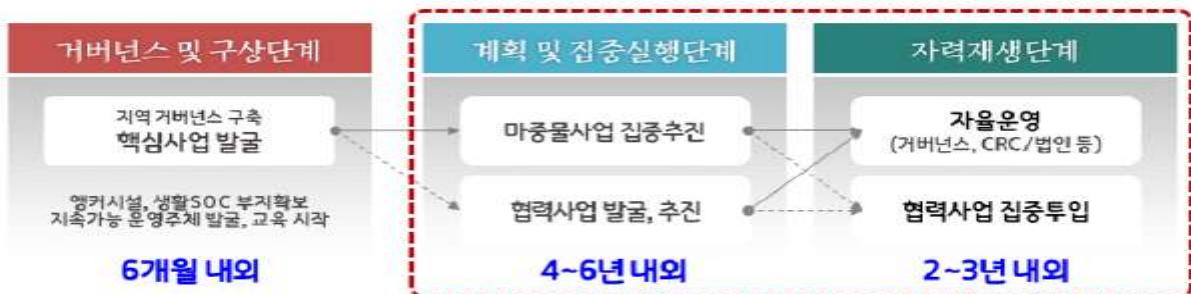
- FGI·워크샵,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 시의회, 학계 의견 반영 및 시민 공감대 형성
- 서울시 도시재생 미래방향 웨비나(웹+세미나) 개최(3월)

→ 사회경제 여건 및 시민요구의 변화를 반영하여 도시재생 정책방향 수립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관리지원체계 구축

● 지역 활성화의 지속성 담보를 위한 공공재정 추가 지원

- 활성화사업단계 후 자력재생단계 포함 총 사업기간 연장(4~6년 → 10년 내외)
- 지역 주민, 기업 등 민간의 자율 운영 및 연계·협력사업 빌굴·집중지원



● 거점시설의 지속가능 운영을 위한 자립형 조성·운영 기준 수립

- (기존 시설) 지역 및 시설 유형에 맞춘 차별화된 운영방식·주체 마련
 - (신규 시설) 기획 단계부터 주민수요 반영, 자립운영, 수익창출 가능한 시설 복합 유도
- 주민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5~6월)를 거쳐 전략계획 재정비 추진(7월)

도시재생 뉴딜 등 정부 협력 강화

●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속 참여

- '21년 10곳 선정 추진('20년 7곳 포함 28곳 선정, 국비 2,644억 확보)
- 시민 체감 높은 거점개발사업 5곳 추가 발굴(거점 단위 서울형 新 사업모델 구상 ~5월)

● 도시재생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 (절차 간소화) 도시재생사업 관련 투심 면제 확대(현행 국비지원사업 限 면제)
- (물리적 개선) 건축·도시계획 제도혁신으로 사업실효성 확보
 - ① 건폐율·도로규정 등 건축규제 완화 ② 활성화계획 수립시 지구단위계획 의제 등
- (뉴딜 확대) 골목길 재생사업 등 서울시 특화재생 인정사업 유형 추가

→ 정부와 유기적 협력을 통한 시민 체감도 높은 “**新 서울형 재생**” 전국 확산

현실 상황을 반영한 빙집 정책 주진방향의 재조정

● 빙집 재고 감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관리체계 구축

- 빙집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빙집 관련정보(발생, 정비, 소멸 등) 체계적 관리
- 빙집 재고 감소 제도개선 추진(법 개정 건의: 빙집 방치시 과태료 부과 등)

● 빙집 매입 및 임대주택 공급 목표 조정

-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빙집매입 및 임대주택 공급 목표 하향 조정

빙집 매입	(당초) 1,000호	(변경) 500호 (감 50%)
임대주택 공급	(당초) 4,000호	(변경) 1,500호 (감 63%)
주민생활편의시설 (소규모 생활SOC)	-	(신규) 120개소

- 임대주택 공급 외 주민생활과 밀접한 편의시설까지 활용 방안 다각화
 - ▶ 사업 연접지 매입, 결합건축으로 활용성 제고(빙집활용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526호 공급 완료)
 - ▶ 소규모 필지 등으로 활용한 공영주차장, 쉼터 등 생활 SOC 조성('21년 55개, '22년 56개)



→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시민요구를 수렴하여 유연한 정책방향 변경 진행

재생을 통한 보행 중심 도시공간 구현

새로운 광화문 광장 조성 추진

● 꼼꼼한 공정계획 및 관리로 새로운 광화문 광장 적기 완공 추진

- 동측도로 확장(3월), 문화재 발굴조사(4월), 시설물 공사 후 11월 완공 예정
- 장마철, 판식 수급 곤란 등 문제에 선제 대응을 위한 공기 합동 TF 구성 ·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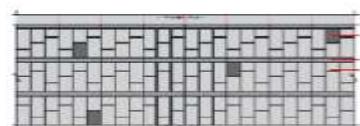


● 광화문 광장 연계 보행환경 개선 추진

- 22개 노선(총 연장 7,530m), 사업비 250억원
▶ '21년 14개 노선(188억원), '22년 8개 노선(52억원) 공사 실시
- 3개 구역(서측, 동측, 자하문로) 분할 발주로 적기 사업추진 및 시민 불편 최소화
- 역사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광장과 동일한 안내 사인물 개선 및 차도부 포장패턴 사용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



(대청마루 패턴)

● 시민참여형 광화문 광장 운영 추진(초기 공공운영 → 안정시 시민주도)

- 광장 운영 컨설팅 용역 실시('21.2~9), 시민참여방안 및 광장활용 기준 마련
- 장소성을 고려한 지역과 상생 가능한 고품격 문화 프로그램 기획

도시 재생을 근간으로 하는 도심 보행축 개편

● 서울로 공공길 조성 : '22년 전구간 개통 예정

- 서울로와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7개 '○○길' 조성
▶ 총 연장 7.6Km의 골목길 연결을 통한 보행환경개선 및 거점연계
- 통합브랜드(BI)를 활용해 안내표식 및 디자인 시설물 설치
- '서울로 남산숲길'의 민관협력 추진
('22년 준공, 총 연장 456m, 135억원)
- 舊 서울역 나선형 램프 재생 명소화 사업
▶ 18년간 폐쇄된 주차램프에 도시재생과 공공미술을 결합한 복합 문화공간 조성('21. 12월 준공, 사업비 19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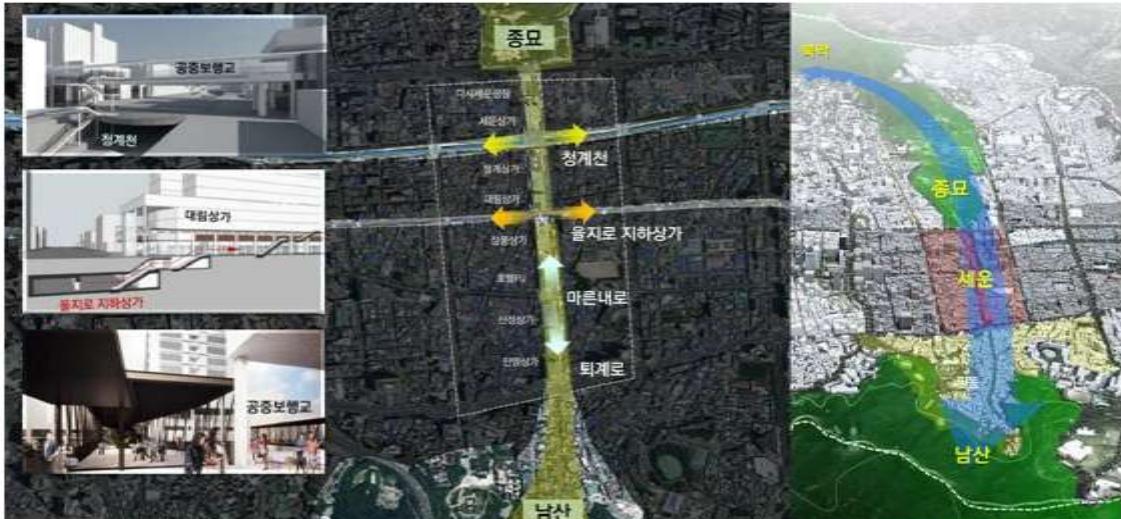
(서울로 남산숲길 위치도)



(구서울역 주차램프)

● 종묘와 남산을 연결한 세운상가 공중보행로 완성 : '21년 9월 개방

- 읊지로 지하보도와 공중보행로 연결을 통한 보행활력 제고
- 공중보행길을 따라 일하고, 보고, 즐기는 활력거점(메이커스큐브)으로 조성
- 종묘에서 남산을 잇는 남북간 보행 네트워크 완성(필동보행로 '21. 4월 개방)



● 근대역사 탐방로와 연계한 정동 보행환경 개선 : '21년 9월 완료

- 덕수궁길, 새문안로2길 320m의 보도폭 확대 등 보행환경 개선 추진
- 덕수공원(새문안로2길변) 휴게공간 조성(873m²)

혁신거점 육성을 통한 서울 산업재생 추진

■ 용산 전자상가 일대(Y 빌리) 도시재생 : 총사업비 825억원

● 공실 활용 전자제조기업 지원공간 조성('21. 3월)

- 전자 제조 관련 스타트업 기업을 키울 수 있는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조성
- 상반기 50개 기업 유치하여 사무공간 및 기술지원 제공

● 1인 미디어(On Air) 스튜디오 운영('20. 1월~)

- 미디어 창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영상 제작 및 편집 교육('20. 3월~)
- 영상물 제작 및 편집을 위한 스튜디오 3개소, 편집실, 소품실 조성

● 전자혁신제조 플랫폼(e-에자일 시스템) 구축 · 운영

- 전자 상품 전주기(제작→피드백→반복제작→유통→A/S) 지원 서비스 구축
- 민관 협업으로 제조설비, 공동조립장, 성능테스트 공간 구성(시, 산자부, 전자산업진흥회 등)

영등포 일대 도시재생 및 정비 추진 : 총사업비 499억원

● 영등포 대선제분 공장 문화재생 거점 조성

- 공장 13개동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21. 11월 완공)
- 8번동은 민관협력으로 문화거점 공간으로 형성



〈대선제분 재생사업 조감도〉

● 문래동 산업활성화 지원 및 도심복합공간 조성

- 기계금속 산업 활성화 애커시설 2개 동 건립

▶ 1번동(2층, 238m²) : 창업공간, 교육장 ('21. 5월 완공)

▶ 2번동(지하1층 지상3층, 1,182m²) : 공동작업장, 전시장('22년 완공)

- 문래동 1~3가, 성매매집결지 구역(약 2만m²)에 업무·산업 등 도심복합공간 조성

홍릉 연구도시 조성 도시재생 : 총사업비 5,043억원

● 홍릉 R&D 지원센터 조성('24년 준공, 연면적 2,050m², 144억원)

- 부지확보 완료('21. 2월) 후 기본 구상 및 설계공모 추진중('21. 하반기)

● 홍릉 바이오헬스센터('25년 준공, 연면적 12,000m², 320억원)

- 부지확보 완료('22. 3월) 후 기본구상 및 설계공모 예정('22. 하반기)

● 홍릉 사회혁신커뮤니티 조성('25년 준공, 부지 341m², 49억원)

- 부지확보 완료('21. 3월) 후 리모델링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 예정(~'21. 12월)

마장 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 : 총사업비 200억원

● 지역산업 변화 유도를 위한 성장기반 거점공간 마련

- 청계플랫폼('21.10 준공) : 공동작업장, 식문화공간, 현장지원센터
- 주거생활지원 상생센터('22. 6월 준공) : 작은도서관, 실버문화센터 입주예정
- 청계천변 마장테라스('21. 6월 준공) : 청계천변 경관정비 및 휴게공간 조성



〈청계플랫폼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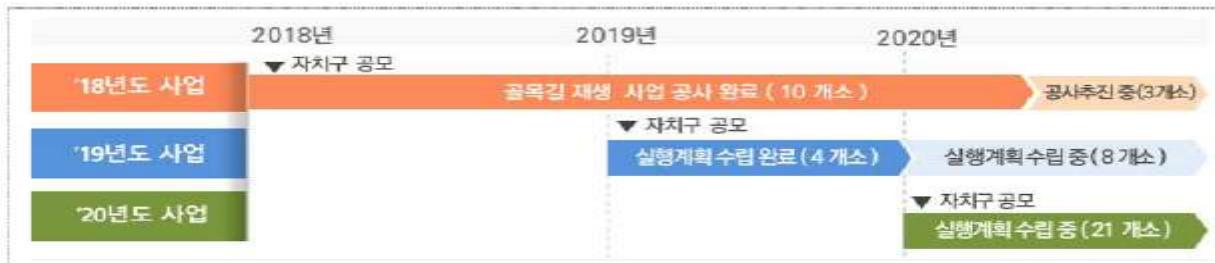
● 주거지 및 청계천 재생 추진

- 주거생활 지원, 가로 환경정비 및 시장 악취 제거사업 진행
- 청계천변 활성화 및 환경개선, 안전한 생활 가로 조성

기주공간 재생을 통한 시민체감도 극대화

골목길 재생을 통한 정주 환경 개선

- ‘골목길’이라는 공간 중심의 특성 있는 재생 추진
 - '21년 11개소 신규 선정(골목길 11곳, 앵커 1개소)
 - 기존 사업 46개소 계속 진행('21년 7개소 준공 예정)



시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다각적 실행 방향 추진

- 골목건축가를 활용한 차별화된 설계 컨설팅 지원
- 민간 나대지 등 사적 유휴공간 대상 ‘지역주민 활용 공간’ 조성사업 추진

저층 노후주택지 집수리 지원 확대(서울가꿈주택)

(실적) 집수리 지원 실적 매년 폭발적 증가

'18년	'19년	'20년
107호, 14억원 (보조 38호, 응자69호)	718호, 61억원 (보조 562호, 응자156호)	1,248호, 82억원 (보조 1,032호, 응자216호)

- '20년 목표대비 156% 실적달성(목표 800호, 실적 1,248호)
- 집수리 아카데미(연 420명 교육), 공구대여소(44개소) 운영으로 실습교육 진행

(계획) 수혜대상 확대 및 절차 간소화를 통한 집수리 지원 강화 진행

대상지역 확대	135개 구역	165개 구역	증30
그린뉴딜 연계	-	공사비 10% 추가지원 (에너지성능 개선시)	신규
융자지원 확대	주택개량 중심 지원	신축까지 대상확대	확대

- 제출 서류 간소화(착수신고서, 공사계획서 등) 및 보조·융자사업 통합 신청
- 지역 집수리 상담자·집수리 전문관 등을 통한 현장 홍보 및 지원 강화

산업 경제 기반형 복합거점 조성

글로벌 비즈니스의 거점,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 기본설계(토목 '19.7, 건축·시스템 '20.12) 및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 완료('20.6), 토목공사 우선시공분 '21.3월 실착공(예정)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 잠실운동장 일대 스포츠·MICE 복합단지 조성

-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설계 착수('20.1)
- MICE 민자사업 적격성조사 완료('20.5), 후속 행정절차 이행, 제3자 제안공고('21.3) 후 협상대상자 선정 예정('21.8)



〈주경기장 리모델링〉

● 현대차 GBC 개발 지원

- 건축허가 관련 사전절차(수도권심의 등) 완료('19.1)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19.6), 건축허가('19.11) 완료 후 '20.5월 착공('26년 준공예정)

동북권의 일자리·문화중심, 「장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 서울아레나 등 문화예술거점 조성

-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실시협약 체결('21.6) 및 '21.12월 착공(예정)
- 고가하부 문화공간 추가조성('21.12) 및 플랫폼 창동61 운영 활성화



〈씨드큐브 창동〉

● 일자리 창출 핵심사업 지속 추진

- 씨드큐브 창동(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공사 지속 추진('19.11~'23.5)



〈동서간 연결교량〉

● 창동·상계지역 기반시설 조성사업

- 지역간 접근성 및 진·출입 개선을 위한 동서간 연결교량 착공('21.3)
-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화 및 상부공원화 공사 착공('21.6)

● 혁신성장거점(바이오메디컬 등) 조성 기본구상안 마련

- 상반기 중 기본구상 및 추진전략 마련,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행정절차 구체화

마곡 용복합 첨단 R&D 혁신거점 구축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인프라 구축

- 「연구공간 공유제」 및 「M밸리 스타트업 하우스」 운영
- 강소기업 입주기회 확대 「민간 R&D센터」 건립(~'24년)
- R&D 융합생태계 지원시설 「서울 M+센터」 건립(~'21.10)



〈민간 R&D센터(D38)〉

● 문화복지 인프라 구축으로 혁신적 연구환경 조성

- LG보육시설('20.3), 코오롱스페이스K('20.6), LG아트센터('22.3) 준공
- 서울식물원 서측 수변공간 명소화 조성 사업자 공모(~'21.1)
- R&D기업 지원 위한 MICE 복합단지 조성(~'24년)



〈MICE 복합단지〉

● 마곡 스마트시티 시범(실증)단지 조성

- 전문가 및 시민이 참여하는 스마트시티 리빙랩 추진 (10개 사업)(~'21.1~12)
- 마곡광장 내 스마트팜 운영 관리(농촌진흥청 협업 추진)(~'25.12)

● 산업시설용지 729천㎡ 중 78%(571천㎡) 매각 완료

- 대기업 55개소, 중소기업 110개소 등 총 165개소 연구중심 기업 유치(~'21.1)
- 클러스터별 첨단산업(IT, BT, NT, GT)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잠재력 제고

수색·DMC역 일대 미래산업 중심지 조성

● 수색역 일대 개발사업 본격 추진

- DMC기능 지원·확장을 통한 서북권 광역중심 조성
-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민간 가이드라인 마련(~'21. 하반기)
- 철도시설(차량기지) 이전 기본계획 및 GB관리계획 변경(안) 추진(코레일) 〈수색역 일대 개발〉
※ 사전협상(~'22.) → 인허가 절차(~'23~'24.) → '25.~'30. 이전부지 개발사업 시행



● DMC역 복합개발

- 대중교통 복합 환승거점 및 광역 생활중심지 육성 추진
- 선도사업(1단계)으로써, 효율적인 사전협상 추진(시·코레일·민간 '21.~)
- I345부지와 연계한 통합계획으로 이용자중심의 역사환경 조성 〈DMC역 복합개발〉
※ 사전협상(~'21.) → 세부개발계획 수립·인허가 절차(~'22.) → '23.~'25. 사업 시행



● 서북권 일대 신전략거점 육성을 위한 실현화 방안 마련

- 기술발전 잠재력이 큰 서북권 경의선혁신벨트 기본구상을 선도적으로 추진
- 서북권에 전략산업 거점 마련 및 실행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극대화

3 지역별 특화 및 균형 발전 기반 강화

권역별 맞춤형 발전전략 추진

미래 공간 비전,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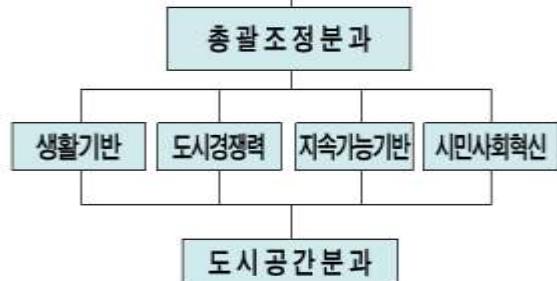
- 서울플랜 시민계획단이 제시, 시민투표로 2040년 서울의 미래상 결정 ('19.10)
-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계획' 및 '부문별계획' 등 계획안 마련 中

2040 서울의 미래상

 “더불어 살아가는 이야기가 있는 지속 가능한 쾌적도시, 서울”
- 전문가, 시의회, 全 실·본부·국 참여 하는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19.10~현재)
 - 추진위 발족식('19.10), 추진위 전체워크숍 ('19.10), 분과회의('19.10~, 분과별 8회)
- 코로나19 여건 감안하여 시민계획단 온라인 정보공유 및 의견수렴 ('20.3, '20.7)
 - 실국·본부 의견수렴 및 자치구 워크숍(2회) 개최
- 코로나 상황 등 여건감안 향후 공론화 등 법정절차 추진

2040 서울플랜 수립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 시장, 시의회의장, 총괄계획기)



2040 서울플랜 수립 추진체계

권역별 중심지 육성전략 마련 및 지역생활권계획 실행계획 확대

- 광역중심(청량리·왕십리) 및 지역중심(동북권, 서남권) 육성·실행계획 수립
 - 광역·지역중심별 지역에 맞는 특화·육성전략 제시로 자생적 지역활성화 기반 마련
 - 고용기반 및 중심기능이 취약한 중심지 우선수립을 통한 균형발전 실현
- 지역생활권계획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수립 추진
 -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구중심 육성, 생활SOC 확충방안 마련
 - 주민참여단, 거버넌스, 전문가 자문, 시·구협의 등을 통하여 (중점) 관리사업 구체화 및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 민선7기내(62개소) 연차적 수립 완료
(완료: '19년 5개소, '20년 15개소 / 수립중: '21년 20개소, '22년 22개소)



■ 지역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위한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

- 역세권 복합개발로 주거 및 일자리 공간, 지역 필요시설 등 확충
 - 시범사업 : 5개소 선정, 사업계획 기본구상(안) 마련 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
▶ 공공 도시공간(임대오피스, 보건지소, 주차장 등 지역필요시설) 약 13,000㎡, 주택 1,501호(공공임대 261호 포함) 공급 예정
 - 1단계 사업 : 10개소 대상, 주민의견 조사 및 사업계획 기본구상(안) 마련
- 역세권 활성화사업 본격 추진을 위한 실행방안 마련
 - 역세권 보행체계 구상, 공공기여시설 운영·관리체계 마련 등

■ 지역 맞춤형 발전을 선도하는 권역별 지구단위계획 수립, 실행

- (도심권)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글로벌 중심지 조성(15개소)
 - 퇴계로변 역사문화 가로 활성화, 용산공원 조성 등 변화를 반영한 관리방안 마련 등
- (동북권) 자족기능이 갖추어진 살고 싶은 도시 구현(29개소)
 - 전통과 문화가 있는 성북동 인프라 조성, 면목상봉 패션 클러스터 조성 지원 등
- (서북권) 창조문화산업 선도 및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7개소)
 - 홍대문화 정체성 회복 및 특화산업 육성, 불광 지역중심 위계상향에 따른 기능 강화 등
- (서남권) 신성장을 선도하고 삶의 질 업그레이드(27개소)
 - 영등포 도심위계에 부합하는 성장기틀 마련, 낙성벤처밸리 조성 여건 마련 등
- (동남권) 국제업무 위상에 맞는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12개소)
 - 서초구청 복합화 등 행정복합 중심지 조성, 가로수길 상징성 부여 및 상권 강화 등

■ 강남북 지역 과차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정책의 안정적 추진

- ‘서울 균형발전계획’ 수립(~'21)으로 실질적 균형성장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지역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분야별 핵심과제 발굴 및 연차별 로드맵 작성
※ 균형발전 5대 분야 : 교통인프라, 산업일자리, 주거환경, 사회인프라, 교육
 - 서울시 균형발전 미래비전 제시 등을 위한 시민·전문가 포럼 실시(9월)
- 공공기관 강북권 이전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상징성이 큰 사업 우선 추진
 - SH공사(강남→중랑), 서울시 인재개발원(서초→강북), 서울연구원(서초→은평)
- 생활SOC 복합화 사업의 낙후지역 우선 확충으로 균형발전 촉진
 - 지역 맞춤형 시민 생활문화 인프라 확충(15개 자치구 39건 944억 국비 확보)
 - 시민체감형 생활 SOC사업 전략적 도입방향 분석(~'2월) 및 운영 가이드라인 (~'21) 마련

시민편의와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인프라 확충

권역별 간선도로망 확충

● (동북권역) 동부간선도로 확장으로 동북부지역 교통난 해소

-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6.85km / 5,505억) 현재 공정률 93%, '21.12월 준공 예정
- 지역재생을 위한 친환경 도로공간 조성을 위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28년 완료)
 - ▶ 민자구간 : 실시협약 체결('21.下) 및 실시설계 추진
 - ▶ 재정구간 : 민자구간과 연계 시행을 위한 기본설계 완료('21.12)

● (서북권역)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구조개선 사업 시행

- 월드컵대교 본선 적기 개통으로 성산대교 교통량 감소 및 경관개선('21.8.본선개통)
- 제2자유로와 접속되는 월드컵경기장 교차로 입체화(4차로, 540m) ('22.1. 개통)
- 강변북로와 마포권역의 연결체계 강화를 위한 연결램프 '21.12월 실시설계 완료



<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



< 월드컵경기장 교차로 입체화 >

● (서남권역) 주요간선도로 적기 개통으로 도로망 구축

- 제물포터널('21.4), 서부간선지하도로('21.8) 개통으로 교통정체 해소 및 친환경 공간 창출
- 침수 및 교통문제 동시 해결을 위한 이수~과천 복합터널 신속추진
 - ▶ 제3자 제안공고('20.12) 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실시협약 협상 착수('21.下)

● (동남권역) 도시발전에 부응하는 대규모 도로사업 적기추진

- 양재대로 지하차도 개설로 서남권~동남권 연결 지속추진(대모·일원지하차도 공사중 18%)
-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과 연계한 주변도로 구조개선 설계완료('21.12)
 - ▶ 올림픽대로·탄천동로 지하화, 동부간선도로 진출입체계 개선 등
- 양재IC 일대 대규모 개발에 대비한 주변도로 교통체계 개선방안 마련('21.12)



< 이수~과천 복합터널 건설 >



<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

지속적인 녹색공간 확충으로 더욱 푸른 도시 조성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3천만그루 나무 심기’ 추진

- 민관협력을 통해 민선 6·7기 동안 누적 2,859만 그루 나무 식재(20년 433만 그루 식재)
- 도심 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바람길숲 조성(21년 강북권 우이천, 강남권 안양천 2개소 추진)
- 가로변, 한강·하천변, 학교·통학로 등 다양한 숲 조성을 통한 시민 체감도 향상
-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높은 수종 위주로 141만 그루 식재(22년까지 계획된 목표 조기달성 추진)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지키기 지속 시행

- 도시공원 일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여 대규모 실효위기 방어(20년 69.2㎢)
- 도시계획시설 공원 내 사유지 보상 지속 추진(21년 1.09㎢ 9,477억원 보상 목표)
- 보상용지에 공원 조성 추진(21년 84억원 77,152㎡ 명일근린공원 등 14개 조성 목표)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녹색문화 도시 실현

● 코로나 블루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는 코로나 그린 추진

- ’21. 3월~6월 동안 다양한 봄꽃 거리를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소확행 제공
- 코로나 거점병원, 지역 선별진료소, 지역 상권 위축지역 등 봄꽃 식재지역 확대

● 시민과 함께 만들고 가꾸는 녹색 정원문화 확산

- 민관협력 건물 옥상녹화(21년 7개소),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실내정원 조성(21년 39개소)
- ‘서울, 꽃으로 피다’ 시즌2 캠페인 등을 통한 비대면 길거리·동네 정원문화 확산



자연과 함께하는 생태·안전 도시 구현

● 일상 속에서 즐기는 자연숲·길 조성

- 서울시 최초 수락산 자연휴양림 조성 추진(숙박시설, 산림치유센터 등 36만㎡ 조성)
- 하천 생태 복원·녹화 추진(21년 21개소) 및 단절된 녹지축 연결(21년 3개소)
- 보행약자를 위한 무장애숲길 조성(21년 11개소 7.0km 추진) 및 등산로 지속 정비

● 산사태와 산불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

- 산사태 예방사업 시행(21년 81개소) 및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21.4월~10월, 풍수해기간)
- 유관기관 공조를 통한 산불 진화 헬기 30대 운영 및 드론 활용 산불 예방

5 지방과 서울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상생

지속 가능한 상생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지역상생 종합계획」 수립·이행

- 코로나가 가져온 정책·기술·환경 변화를 반영한 상생사업 발굴 및 운영
 - 교류특성과 지역여건을 반영한 비대면 프로그램 병행 및 사업 재설계
 - 지역의 자원과 사업을 우리시 정책과 연계하는 지역 기반 상생모델 개발

구 분	분 야	주 요 사 업
사람교류	서울-지방 상호 인적교류	청년 일자리 창출, 서울농장 조성, 문화예술 공연 교류 등
정보교류	혁신 기술 제도 공유	지자체 MOU 체결 활성화, 서울정책연수프로그램 등
물자교류	자원의 유기적 연계	직거래 장터 활성화, 과일 농산물 판로지원 등

- 지역 맞춤형 협력사업 확대를 통해 우호교류협약(MOU)의 실효성 제고
 - 기존 협약사업 재정비 및 신규 MOU 등을 통해 지역과의 상생협력 체계 강화
 - 지역과 지역민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협력사업 확대(청년 일자리, 직거래 장터 등)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상생발전의 선순환 체계 구축

- 청년 및 중·장년 일자리 연계, 귀농·귀촌 지원 등 세대별 맞춤형 교류 추진
 - 대학생 지역관광 홍보단(40명), 청년농부 활동 지원(50여 농가) 및 농촌 일자리 지원(200명) 등
 - 어린이 식생활 체험(920명), 청소년 역사·문화교류(1,000명), 귀농·귀촌 교육(500명)
- 서울시 혁신정책의 지역 공유 프로그램 「서울정책연수」 지속 운영
 - 市 정책현장 방문프로그램 '서울혁신로드'(지방→서울) 활성화(비대면 연수 등)
 - 지역현장 컨설팅 '찾아가는 혁신로드'(서울→지방) 운영 확대('20년 5개 → '21년 7개)
- 서울과 지방의 상생교류 거점공간 운영 및 지방 농·특산물 판로 지원
 - 지방폐교를 활용한 자연체험 캠핑장(8개소) 및 상생상회 운영 활성화
 - 지역 특산물을 직거래하는 '농부의 시장(40회)' 및 '지역·전통시장 공동마케팅(60곳)' 추진



5. 시민이 주인되는 민주 서울

① 성차별·성희롱 없는 서울 구현

② 사회혁신 생태계 확장 및 청년·인권 정책 강화

③ 시민이 결정하는 민주주의 도시 서울 구현

④ 대시민 소통 강화로 시민이 체감하는 시정 구현

⑤ 신뢰받는 청렴시정 구현 및 민생 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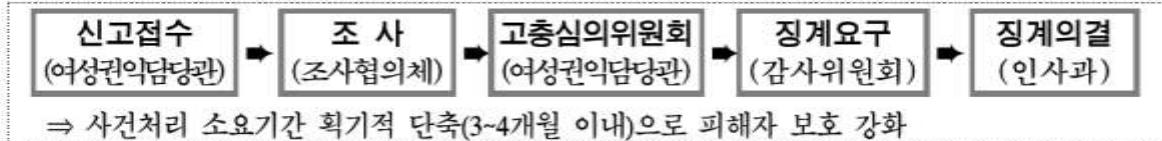
⑥ 코로나19 시대 적극 재무행정 추진

1 성차별·성희롱 없는 서울 구현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 본격 추진

● 피해자 중심의 사건처리절차 일원화 및 고충상담창구 접근성 개선

- 신고접수부터 조사, 심의, 피해자 보호까지 단절없는 처리체계 구축



- '市 성희롱·성폭력 예방규칙' 제정, 내부 고충상담창구 외 민간 전문기관 추가 운영

●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 및 실효성 있는 교육 추진

- '성평등문화 혁신위원회' 상설 운영 : 방안 제안⇒제안검토(유관부서)⇒결과환류
- 고위직 교육 의무화, 고충상담 공무원 특별교육, 별정직 공무원 교육관리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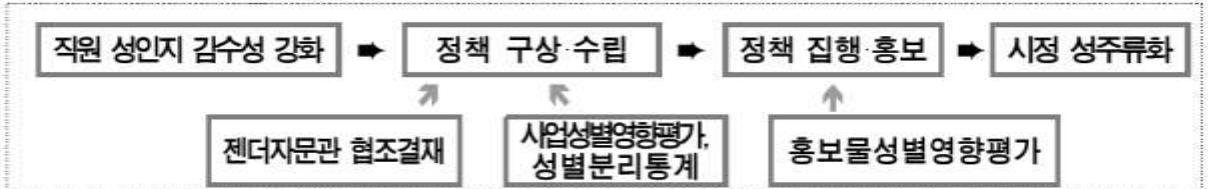
● 추진상황 이행점검 체계 구축

- 실행력 확보를 위한 '이행상황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 연2회 점검

시정의 성주류화 강화 및 성평등 문화 확산

● 정책 수립부터 실행까지 시정全过程 성인지성 강화

- 성별영향평가 대상선정·점검·환류까지 관리 및 성인지예산, 성별분리통계와 유기적 연계 강화



- 市운영 웹사이트(153개) 성인지 전수 점검 → 성별영향평가 의무화+시민 신고센터 운영

● 조직내·지역내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직원 성인지 감수성 확립 온라인교육 확대(2종→10종), 성평등 문화 10대수칙 홍보물 제작·배포
- 市·區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운영, 주요사업 점검을 위한 '성평등정책 활동가'(200명) 양성

성별 임금격차 해소 등 성평등 노동정책 추진

● 「성평등임금공시」대상 확대로 성평등한 노동환경 변화 견인

- '19년 투자출연기관(22개)에서 '21년 투자출연기관(25개)+서울시(본청)+시립대까지 대상 확대

● 고용상 성차별 조사 본격 시행으로 관행적 차별사례 개선

- 조직내 노동분야 차별조사관 제도 시행 : 노동·성평등 법령 위반사항 조사 및 시정 권고
- 직장맘지원센터(3개소) 운영 : 노동권·모성권리 보호, 경력단절 예방, 일·생활균형문화 조성

2 사회혁신 생태계 확장 및 청년·인권 정책 강화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혁신

- 사회혁신 생태계 기반 조성 및 확장을 통한 글로벌 사회혁신 허브도시로의 도약
 - 미래전환 사회혁신 캠퍼스 운영을 통해 사회혁신 인재 발굴·양성(250명)
 - 글로벌 사회혁신 클러스터 및 동북권 청년혁신팩크 조성을 통한 사회혁신 거점 확대
- 지역기반 순환경제 및 공유활동을 통해 생태적·포용적 도시전환 확산
 - 지역순환경제 거점모델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전환활동 주체의 역량 강화
 - 일상의 동선 중심 및 민관협력형 공유모델 발굴·확산을 통한 공유서울 3기 추진
- 지역갈등 조기진단과 자발적 화해역량 강화
 - 「서울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이슈와 갈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 생활쓰레기 공론화
 - 지역갈등 자율조정 활동역량 강화 및 확산을 위한 주민조정가 양성(100명)

청년의 기회 보장 및 자립기반 강화

- 「2025 서울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수립을 통한 서울시 청년정책 로드맵 확립
 - 코로나19 등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목표와 방향성 확립
 - 분야별 과제에 따른 실·본부·국 협의와 전문가 등 관계자 회의를 통한 핵심과제 도출
- 장기 미취업·실업 청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보완
 - 졸업 후 2년 넘은 미취업 청년 20,000명에게 청년수당 지급(월 50만원×최대 6개월)
 - 청년의 마음건강을 위한 전문상담사 일대일 심층상담 지원(연간 2,000명)
 - '청년 일자리 1000개의 꿈' 추진을 통한 미래전략사회서비스 분야 청년일자리 제공
- 서울청년시민회의 및 청년자율예산제의 고도화를 통한 청년자치 구현
 - 체감도 높은 청년정책의 발굴을 시도할 서울청년시민위원 500명 모집 및 구성
 - 내실 있는 시정참여교육과 숙의·공론을 통한 현장성 있는 정책 마련 및 청년자율예산 편성

인권 친화적 시정 활동 강화

- 반(反) 인권적 정책 개선 및 인권 감수성 제고
 - 인권영향평가 영역 확대 : 자치법규 → 건축시설물 → 정책사업
 - 공공기관 인권경영 강화 : 평가배점(1점→2점) 및 범위 확대(체계 구축+구제절차 제공 등)
 - 직원 인권교육 이수율 향상 : 운영방식 개선(온라인, 소규모 집합교육), 다양한 교육 콘텐츠 제작지원
- 인권침해에 대한 실질적 조사구제 강화
 - 인권침해 직무범위 확대 : 시의 지원을 받는 “법안단체” 추가하는 조례 개정 추진
 -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확대 : 단체지원 예산 증액(30백만원 → 150백만원)

3 시민이 결정하는 민주주의 도시 서울 구현

■ 시민의 참여와 공론을 통한 시민민주주의 실현

● 시민이 결정하는 서울! 공론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서울시민회의」 운영

- 공모를 통해 지역·성별·연령을 고려한 1,000명 규모의 시민위원 구성·운영
-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여 현장토론과 화상토론을 결합한 공론장 운영('21.5.~10.)
 - ▶ 환경, 교통, 방역, 경제, 일자리 등 다양한 주제별 시민회의 수시 개최(6회)
- 정책과 예산을 집중 숙의하고 결정하는 「시민회의 총회·민주주의 주간」 연계 운영
 - ▶ 민주주의 주간('21. 8. 28. ~ 9. 1./5일간), 시민총회(8.29.)

● 시민 참여로 바뀌는 서울! 「민주주의 서울」 정책 실행력 강화

- 온오프라인 공론장의 유기적 연계 운영으로 깊이 있는 공론화 추진
- 시민제안의 예산반영 확대로 정책 실행력 강화 및 시민참여 효능감 제고
 - ▶ 시민숙의예산 '100억원 규모의 민주주의 서울 제안형' 신설·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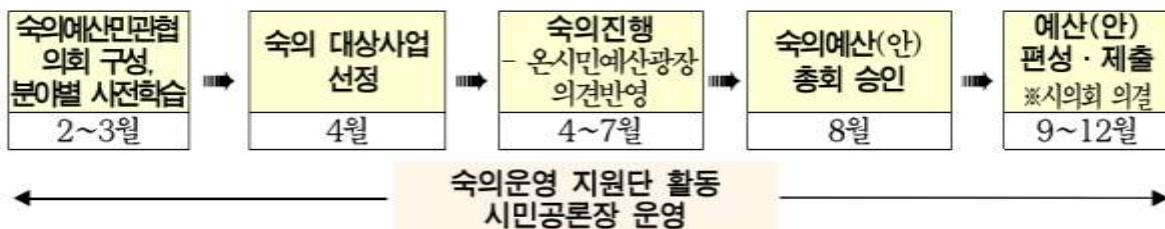
● 시민이 성장하는 서울!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시민의 민주적 참여역량 제고

-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으로 서울 민주주의 실현 기반 마련('21.4.)
- 비대면 방식의 생활 속 민주시민 교육 지원 강화
 - ▶ 비대면 위주 '생활 속 대화모임' 활성화, 온라인 민주시민교육 아카데미 운영 등

■ 더 많은 시민, 더 깊은 예산참여를 통한 재정 민주주의 실현

● 다양한 시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시민숙의예산(숙의형) 추진

- 복지, 환경 등 18개 분야(9,300억원 내외) 대상으로 시민참여에 의한 숙의·공론화 실시
-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온시민예산광장 등 구성하여 다양한 주체들의 온오프라인 참여 보장



● 시민이 예산사업을 제안·심사·선정하는 시민숙의예산(광역제안형) 운영

- 광역단위(광역제안형, 민주주의서울제안형 등) 400억원 내외, 지역단위(구단위계획형, 동단위계획형) 300억원 내외 등 총 700억원 규모 운영
- 제안사업 심사('21.4.~7.), 시민 전자투표 후 한마당 총회 최종 승인('21.8.)
- 다양한 교육수요에 따른 맞춤형 예산학교 강화(연 50회) 및 온라인 교육 상설 운영

■ 시민사회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협치서울 실현

●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 사회 전반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21. 7.)
 - ▶ 공익활동 사회적 인정체계 구축, 재원 적극발굴과 다각화 방안 마련 등
- ‘비대면의 일상화’ 시민사회 전환기 대응을 위한 협치공론장 운영(3회)

● NPO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시민사회 전반의 공익활동 촉진

- 생활권 단위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권역 NPO지원센터 확대
 - ▶ 동북권NPO('18. 6.), 동남권NPO('20. 3.)에 이어 서남권NPO 개소('21. 3. 예정)
- 공익활동 거점공간 NPO입주·협업공간 조성('21. 2.) 및 운영('21. 9.~)
- 시민사회 공익활동가 양성을 위한 공익활동 디딤자리 인턴십 운영

● 시정협치의 제도적 정착으로 지속 가능한 협치체계 구축

- 위원회제 혁신 및 협치역량평가 반영 비율 확대로 시정에 협치문화 확산
 - ▶ '21년 위촉위원 공개모집 비율 20% 목표, '23년까지 정원의 30%까지 상향
 - ▶ 협치역량평가 제도기반 강화를 위한 기관평가 배점 2%→5%까지 확대
-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한 협치 학교 운영으로 교육 지속성 확보
 - ▶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활용한 전체 교육의 50% 이상 비대면 추진 및 교육 대상 확대

■ 지역사회 시민역량 강화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 마을공동체 거점 공간 「마을 활력소」 조성 및 운영 지원

- 8개소 조성 지원(거점형 2, 마을공동체형 3, 모두의 공간형 3) 및 운영주체 발굴 추진
- 마을활력소 운영 활성화를 위한 공감워크숍 운영(4개소) 및 사업비 지원(26개소)
- 공동체 공간 운영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공간 온라인 플랫폼 「공간이음」운영

●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마을생태계 기반 조성

- 마을·자치가 융합된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 지원(24개 구)
- 주민 요구에 맞는 상향식 현장밀착형 공모사업 추진(1,561건)
- 마을생태계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정착을 위한 성과관리 시범 도입
 - ※ '21년 시범 평가를 통해 개선사항 도출 및 지표 반영 후, '22년부터 본격 시행

● 동단위 마을문제(현안) 해결 지원으로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

- 주민세(개인균등) 징수분 지역 환원으로 서울형 주민자치회 지원(136개동)
- 「동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지원으로 마을계획 등 실행력 향상(166개동)
- 마을의 사회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로컬랩 추진(5개동)

4 대시민 소통 강화로 시민이 체감하는 시정 구현

■ 시민 주도의 시정참여 및 소통 활성화

- 시정정보 제공 및 현장중심의 소통 강화를 통한 시민과 시정공감대 확산
 - 신문·잡지·방송, 市·자치구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시정·생활 정보 적기 제공
 - 시정여론조사, 종합적 소통공간, 희망광고 등 운영을 통한 참여형 현장 소통 활성화
- 뉴미디어 매체를 통한 시민이 원하고 필요한 시정정보 접근성 제고
 - 온라인매체 활용, 재난안전 및 시민생활 유용 정보 신속 제공 등
 - 소셜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 제작·확산 및 시민참여 확대
- 코로나19 대응 신속한 정보제공 및 캠페인을 통한 전방위 대시민 소통
 - 각종 방역 캠페인, 시민격려 캠페인 및 온기대책 등 민생지원홍보



■ 서울브랜드(I·SEOUL·U) 마케팅을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

- ‘스마트·안전도시 서울’ 해외마케팅 및 도시간 우호협력 강화를 통한 국제도시 위상 제고
 - 전략적 해외 프로모션(세계 대형이벤트 연계, 문화교류의 날 등) 등 서울이미지 및 품격 제고
- 
 - CTA멤버 네트워킹(CES)
 - 도시정부시장회의(CAC)
 - 서울브랜드글로벌포럼
 - 서울-울란바토르 문화교류
- 시 대표 외국어 매체 등을 활용한 시정 홍보 및 도시매력 확산
 - 市 대표 외국어 홈페이지(5개) 및 SNS(8개) 등을 활용한 주요정책 해외홍보 확산
 - 서울영어뉴스방송(아리랑TV), 해외언론기사, 우수시정 온라인프로모션 등 도시매력 홍보

■ 시민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 시민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응대 역량 강화
 - 민원서비스 친절교육(온오프라인 10,000여명) 및 민원담당자 힐링데이 운영(12회 200명)
 - 민원응대(전화/방문)서비스 품질관리(상·하반기) 및 민원행정서비스 종합평가 추진(11월)
- 시민 이용편의성 제고 및 민원업무 효율화를 위한 응답소 민원시스템 강화
 - 서식민원관리시스템운영·기능개선 및 AI기반 응답소민원분석시스템 운영고도화

5 신뢰받는 청렴시정 구현 및 민생 안정

■ 공정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구현 및 시민체감 민생감사로 시민만족도 제고

● 청렴도 평가 1등급 도약을 위한 청렴활동 강화

- '20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아 상위권 도약 (광역지자체 중 최고)
-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 시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청렴정책 지속 추진
- 청렴UP 콘서트, 청탁금지법 교육(동영상), 청렴알림문자 확대 등 다양한 청렴활동 전개

● 적극행정제도 정착 및 활성화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 사전컨설팅제도 활성화, 적극행정책임관 지정 등으로 적극행정지원체계 구축
- 적극행정 실행 중점과제 이행,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등 인센티브 지원

● 시민생활 밀접시설 및 안전취약시설 감사 확대로 사회 안전망 구축

- 보건·환경, 교통, 코로나19 취약계층지원 분야 등 생활편의 지원 실태 감사
- 투출기관 비위, 신생 투출기관 선제적 감사로 공공기관 안착지원
- 보건·의료, 복지, 안전제도 등 안전감사분야 확대로 촘촘한 안전망 구축

■ 특별사법경찰 활동강화를 통한 민생침해범죄 척결

● 코로나19로부터 시민 안전 및 생명 보호

- 코로나19 민생침해 및 생활·안전 위협 범죄 대응 역량 집중
- 계도 활동, 유관부서 협동 단속 등 방역수칙 위반 신속대응 체계 구축
- 특사경 감염병예방법 수사권 확보를 위한 총력 대응(타 시도, 법무부 협업 등)

● 온라인 정보분석 등을 통한 예방적 기획 수사력 강화

- 언론보도, 소셜 및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수사방향 선정 및 예방수사 강화
- 범죄 처벌보다 시민 안전이 중요한 범죄 사전예방 도모(민생침해사전예보)
- 수사관 맞춤형 성장 플랜 도입 및 직무교육 강화로 수사 전문성 제고

● 시정 역점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수사력 집중

- 부동산 시장질서 저해, 불법 대부·다단계, 환경오염 범죄 등 수사 강화
- 市 유관부서 협업 등을 통한 수사결과 환류 기능 제고

6 코로나19 시대 적극 재무행정 추진

■ 시민에게 힘이 되는 공감 재무행정 구현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납세자 지원 강화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대상 임대료 50% 감면 및 확산시 지원대상 확대
- 코로나19 직·간접 피해자 대상 납부기한 연장, 징수·체납처분유예 등 세제지원
- 재난 대응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운영중인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비과세 추진

● 지방세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강화

- 생계형 체납자 권리보호 전담창구 운영 및 복지제도 연계 등 컨설팅 운영 활성화
- 코로나19 피해 체납자에 대한 신용불량자 등록 보류 및 압류재산 체납처분 유예
- 자치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생계형 서민체납자 지원 강화
▶(자치구)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적정 보험료 조정 지원

■ 안정적 세입 확보로 든든한 재정기반 마련

● 코로나19대응 ‘언택트’ 징수활동 강화로 세입목표 달성

- 세목별·월별 市세입실적 분석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한 분기별 서면점검 강화
- FIU(금융정보분석원)¹⁾ 정보를 활용한 차명·은닉 재산 추적 및 출국금지 등 조치
- 행안부·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등과 연계, 국적이탈 후 재입국 체납자 추적·징수

● 부동산 공시가격 및 시가표준액 균형성 제고

- 주택 유형별(단독·공동) 실거래가 분석 및 공시가격 반영비율 연구
▶공시가격 현실화 수준을 검증 및 ‘21년 개별주택가격 현실화율 조정시 참고로 활용
- 오피스텔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현실화율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
- 자치구 공시업무 전문성 지원을 위한 부동산 가격공시 지원시스템 구축 및 역량 강화 교육실시

1) FIU :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외화 불법유출을 막기 위해 설립. 금융기관으로부터 의심스러운 금융거래 내용을 수집·분석하여 법집행기관에 제공